

하나된 울림으로 세상을 바꾸다

A Bimonthly Magazine of ACRC

03+04 2011 VOL.19



국민권익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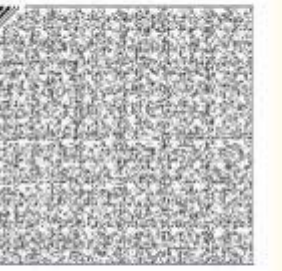
억울함이 없는 나라, 깨끗한 사회

국민의 작은 목소리에 귀 기울이며 국민의
목소리를 담아내고 공유할 수 있는 그릇입니다



파릇하게 자란 풀밭 위, 구름 한점 없는 푸른 하늘
오랫동안 봄을 기다려왔던 사람들의 마음에도
푸른 하늘이, 시원한 바람이, 따뜻한 계절이 펼쳐집니다.
국민의 마음을 헤아리고 행복을 실현하는 나라.
푸른 하늘처럼 청렴한 세상이 펼쳐집니다.





기획특집

04 Global Issue

권익위, UN 등 국제사회와 반부패 국제공조 강화

08 Special

청렴한 세상, 공정한 사회 구현을 향해

12 ACRC Issue

지방의회의원 행동강령 시행

발행일 2011년 4월 1일(격월간, 통권 19호, 비매품)

발행인 김영란 발행처 국민권익위원회

편집인 우경중

주소 120-705 서울시 서대문구 통일로 87(미군동)

전화 02 360 2727 팩스 02 360 3520

홈페이지 www.acrc.go.kr

기획/디자인/인쇄 성우애드컴 02 890 0904

외부필자의 원고는 위원회의 공식 입장과 일치하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Bimonthly Magazine of ACRC

03+04
2011 vol. 19



억울함이 없는 나라, 깨끗한 사회

희망공감

16 국민의

제3회 국민신문고 대상에서 만난 자랑스러운 얼굴

18 국민에 의한

경찰의 위치추적 권한, 약인가 독인가?

20 국민을 위한

그대 이름은 슈퍼맨

24 지켜줘요! 국민권익!

청원 내수음 복이면 12개 마을 진출입로 설치

26 오피니언

평등이 행복을 낳는다

행복누리

28 우리 문화

600년 역사의 숨결 느껴지는 '조선왕릉'

32 문화지킴이

통영이 운명이고 춤이 운명이었네

36 법과 권익

예금자보호법, 제대로 알자!

38 건강한 삶

게으름에서 벗어나 삶 속으로!

40 카메라에 비친 풍경

오감의 고장 하동에 피어나는 봄

42 포커스 온

부패한 세상에 경종을 울리는 영화 <부당거래>

46 또 다른 세상

인터넷이 우리의 뇌 구조를 바꾸고 있다 <생각하지 않는 사람들>

48 ACRC News

50 편집 후기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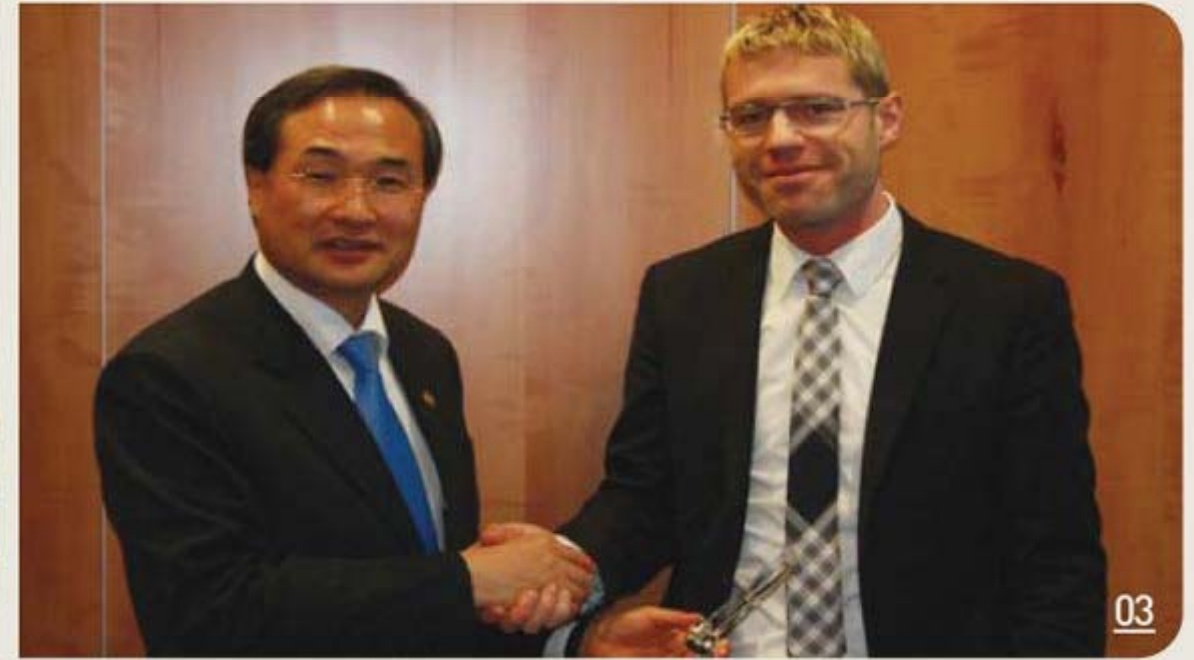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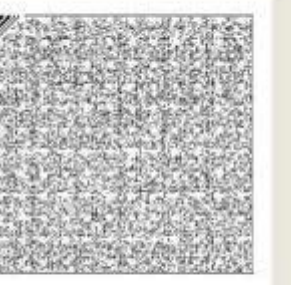


권익위, UN 등 국제사회와 반부패 국제공조 강화

– 김영란 위원장, 김대식 부위원장 ‘해외 청렴정책 설명회’ 개최



국민권익위원회는 G20 서울 정상회의 ‘반부패 행동계획’ 채택 과정에서 선진국과 개도국 간 가교 역할을 수행하는 등 국제 반부패 협조체계 구축에 선도적 노력을 기울이고 있다. 또한 고위공직자 청렴도 평가, 전방위적 알선·청탁 근절 대책 추진 등을 통해 신뢰사회 조성에 힘쓰고 있다. 최근 권익위는 이런 한국 정부의 반부패 정책을 국제사회에 알리기 위해 해외 청렴정책 설명회를 개최하였다.



01 김영란 위원장이 돈 파크 미 연방윤리청 부청장과 회담을 마친 후 기념패를 주고받고 있다. 02 김대식 부위원장이 네덜란드 국가청렴원 마리진 즈위거 원장을 만나 양 기관간 반부패 교류 협력을 강화기로 합의한 후 악수하고 있다. 03 김대식 부위원장이 제네바 소재 세계경제포럼(WEF)을 방문해 마이클 피더슨 WEF 반부패연대 대표와 협의한 후 기념촬영하고 있다.

“이번 ‘해외 청렴정책 설명회’로 반부패 국제기구와의 보다 긴밀한 네트워크를 구축하고, 국격 향상 효과를 거둘 것으로 기대된다.”

반부패 국제협력분야에서 선도적 역할 수행을 기대하며

국민권익위는 2006년부터 매년 국가 청렴도 제고를 위해 ‘해외 청렴정책 설명회’를 실시해오고 있다. 국민권익위가 꾸준히 추진해 온 해외 홍보 활동은 한국의 개선된 투명성과 청렴도를 국제사회가 바르게 인식할 수 있는 계기가 되었다.

출장개요

- 위원장

- 출장기간 : 2011. 2. 27 ~ 3. 6
- 방문기관 : 홍콩-염정공서, EU 아시아 사무소 / 미국-UN 본부, UN 글로벌 컴팩트, 미정부윤리청, 한미재계회의, 양형위원회

- 부위원장

- 출장기간 : 2011. 3. 9 ~ 3. 15
- 방문기관 : 네덜란드 국가청렴원, 스위스 세계경제포럼, 벨기에 EU 부패방지총국, 덴마크 중대경제범죄검찰청

올해는 홍콩과 미국, 유럽에 소재한 반부패 국제기구, 정부기관을 대상으로 김영란 위원장과 김대식 부위원장이 직접 우리 정부의 강력한 반부패 의지를 천명하고 지속적인 반부패 국제공조 강화에 대해 논의했다. 또한 이번 설명회를 통해, 한국정부의 주요 반부패 정책의 우수성에 대한 홍보로 대외 신인도를 높였다. 개도국 대상 반부패 기술이전, UN 반부패 아카데미 참여 등에 대한 국제사회의 적극적인 지지를 확보하였으며, 시민사회와 협력확대, 민간기업의 자율적인 윤리경영 유도 등 해외 반부패 우수사례에 대한 공감대를 형성하는 성과를 거두었다. 특히 이번 ‘해외 청렴정책 설명회’로 반부패 국제기구와의 보다 긴밀한 네트워크를 구축하고, 국격 향상 효과를 거둘 것으로 기대된다.

국민권익위는 향후 방문기관별 논의사항에 대해 체계적인 후속조치 마련·관리를 통해 네트워크를 강화해나가는 한편, 국제 반부패 아카데미 참여를 위한 구체적인 방안을 마련할 계획이다.

김영란 위원장, 홍콩과 미국 반부패기관 순방

- 반기문 총장 “UN차원에

한국의 반부패 노력 적극 홍보”

김영란 위원장이 취임 후 첫 해외출장을 떠나 지난 달 27일부터 6일까지 홍콩과 미국 워싱턴 DC, 뉴욕 일대의 반부패 국제기구들을 일제히 방문해 한국정부의 반부패정책을 알리고 돌아왔다.

김위원장은 특히 2일 반기문 UN사무총장을 만난 자리에서 한국정부의 공정사회와 청렴에 대한 의지를 강력하게 피력하고, 이러한 노력의 일환으로 권익위가 추진하는 고위공직자에 대한 청렴도 평가 계획을 소개하였다.

이 자리에서 김위원장은 지난해 오스트리아에 설립된

국제 반부패 아카데미(ICA, The International Anti-Corruption Academy) 각종 교육프로그램에 한국이 참여해 한국의 우수한 반부패? 청렴 정책이 전세계에 전파될 수 있도록 UN의 협조를 요청했다. 이에 대해 반총장은 “UN차원에서 적극 지원하겠다. 한국이 과거 부패사례 때문에 국제사회에서 아직도 부정적인 인식이 남아있지만, 나는 한국정부의 청렴의지를 국제사회에 널리 알리고 있다”고 밝혔다.

또한 김위원장이 청렴정책을 펼쳐나가는데 있어 정치권이나 오랜 관습과 부딪치게 되겠지만, 시민사회의 지원을 받으며 잘 헤쳐나갈 수 있기를 희망한다고 하였다.

이후 반총장은 다음 날인 7일 Maria Fekter 오스트리아 내무장관(H.E. Ms. Maria Fekter, Minister of Interior of the Republic of Austria)을 만난 자리에서 김위원장의 UN반부패아카데미 참여 의지를 직접 전달한 것으로 알려졌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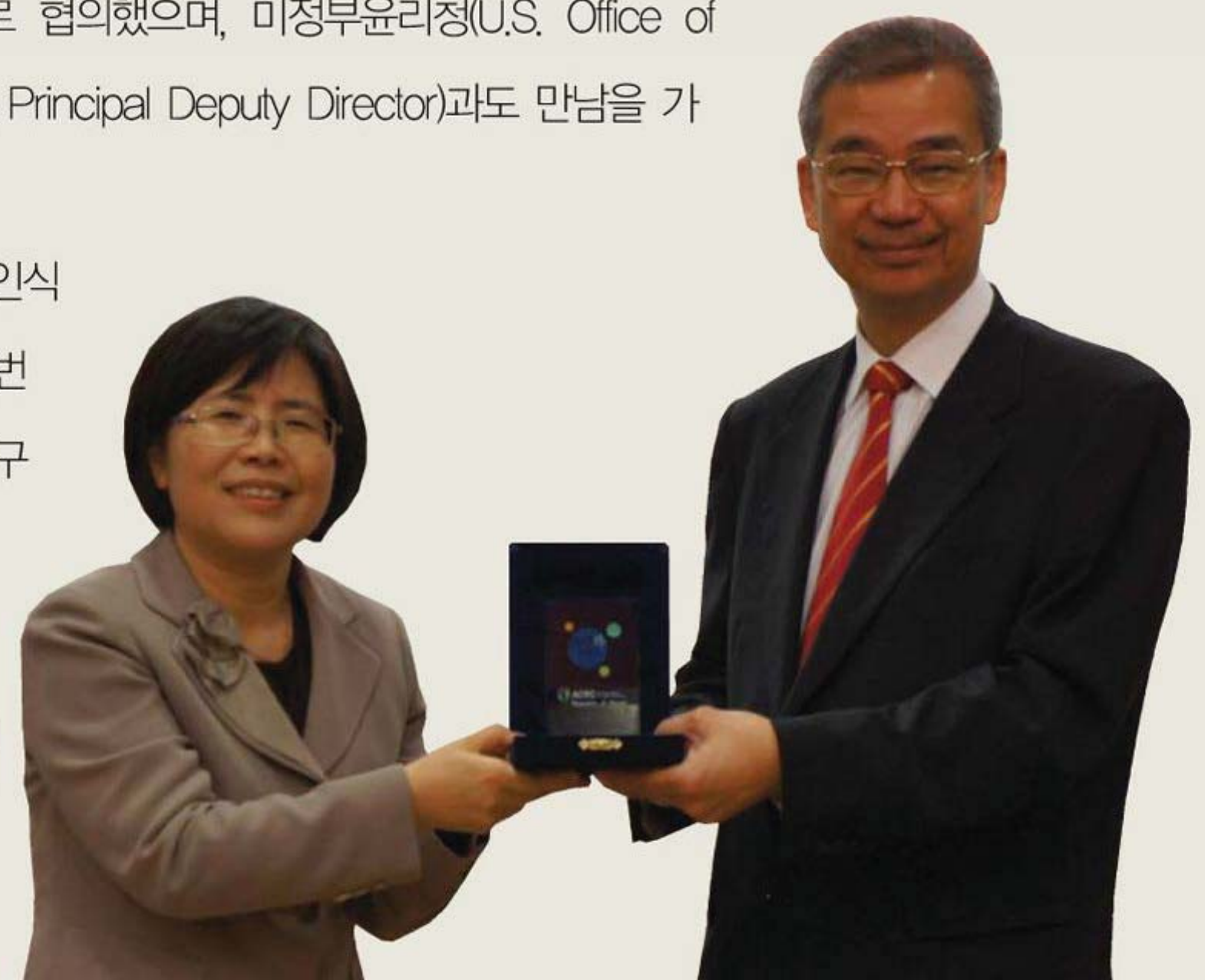
이외에도 김위원장은 이번 해외 반부패정책설명회를 통해 국제사회에서 저평가된 우리 정부의 반부패 성과를 알리기 위해 2월 28일에는 홍콩 염정공서(廉政公署, ICAC, Independent Commission Against Corruption)의 티모시 통(Timothy Tong)위원장과 염정공서 부패예방국(Corruption Prevention Department)의 목 와호이(Mok Wah-hoi) 부국장 등을 만났으며, 3월 4일에는 워싱턴의 한미재계회의(US Korea Business Council)를 방문, 타미 오버비(Tami Overby) 한미재계회의 미국측 부회장(미 상공회의소 아시아총괄, Vice President of Asia, U.S. Chamber of Commerce)을 만나 한국의 반부패청렴정책과 기업투자환경의 투명성 제고노력을 설명했다. 이 자리에서 김위원장은 국제적 기준에 부합하지 않는 불합리한 제도를 개선해 외국기업이 한국에서 어려움을 겪지 않도록 하겠다는 의지를 천명했다.

이외에도 미 양형위원회(U.S. SENTENCING COMMISSION)의 케탄지 브라운 잭슨(Ketanji Brown Jackson) 부위원장을 만나 한국 기업의 윤리적 기반 강화를 위한 인센티브제 방안도 구체적으로 협의했으며, 미정부윤리청(U.S. Office of Government Ethics)의 돈 파크 부청장(Don W. Fox, General Counsel & Principal Deputy Director)과도 만남을 가졌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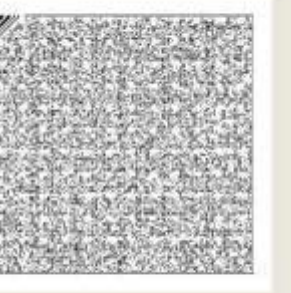
국민권익위는 그동안 한국의 개선된 투명성과 청렴도를 국제사회가 바르게 인식하는 데 초점을 맞춘 해외 홍보를 꾸준히 추진해오고 있으며, 김위원장의 이번 해외 반부패정책설명회를 통해 반부패 국제기구와의 보다 긴밀한 네트워크 구축과 국격향상 효과를 기대하고 있다.



04 김영란 위원장이 한미재계회의의 타미 오버비 부회장 등 관계자와 의견을 나누고 있다.



김영란 위원장이 염정공서 티모시 통 위원장에게 기념패를 전달하고 있다.



05 김대식 부위원장이 유럽 연합 부패방지 총국 니콜라스 아일렛 부국장을 만나 양 기관의 부패방지 협력 방안에 관해 논의한 후 악수하고 있다. 06 김대식 부위원장이 코펜하겐 메리어트 호텔에서 한국 사회의 청렴도 수준과 정부의 반부패 활동에 대해 외신기자 회견을 하고 있다.

김대식 부위원장 유럽 반부패정책 기구 방문

- EU대표들 “한국의 내부고발 보상제 효과적”

김대식 국민권익위원회 부위원장이 지난 9일부터 6일 일정으로 한국의 반부패 청렴 정책을 홍보하고 국제 반부패기구들과의 협력을 강화하기 위해 네덜란드, 스위스 등지에 있는 유럽의 반부패정책 기구를 방문했다.

9일(현지시각)에는 헤이그에 있는 네덜란드 청렴정책 총괄기구인 국가청렴원(National Integrity Office)의 마리진 즈위거(Marijin Zweeger)원장을 예방하고, 올해 한국정부가 강력히 추진하고 있는 알선청탁 근절 노력에 관해 설명하고, 공공기관을 대상으로 한 한국의 청렴도평가제도와 공직자 청렴교육을 자세히 소개했다.

10일(현지시각)에는 스위스 제네바에 있는 세계경제포럼(WEF, World Economic Forum)과 벨기에 브뤼셀에 위치한 유럽연합(EU)의 부패방지기구인 부패방지총국(European Anti-Fraud Office)을 각각 방문했다.

세계경제포럼의 반부패연대(PACI : Partnering Against Corruption Initiative) 마이클 페더슨(Michael Pedersen , Head) 대표에게는 ‘투명신뢰사회정책협의회’(The Policy Council for Transparent Society)를 중심으로 한 한국의 반부패 민간협력 활동과 윤리경영 지원 노력에 대해 중점적으로 설명하고, EU 부패방지총국의 니콜라스 아일렛(Nicholas Ilett) 부국장(Director)을 만난 자리에서는 부

패신고자의 신고로 정부예산이 환수될 경우 신고자에게 지급하는 보상금제도를 소개했다. 세계경제포럼의 반부패연대 마이클 피더슨 대표는 한국정부가 추진하고 있는 기업 CEO를 대상으로 한 청렴교육에 대해 깊은 관심을 표명하고, WEF 반부패연대에 한국 기업의 참여 확대를 당부했다. EU 부패방지총국의 니콜라스 아일렛 부국장 역시 한국의 부패 신고자 보상제가 내부고발자 보호제도를 정착시키는데 매우 효과적이었다고 평가하고, 개인별 고위공직자 청렴도 평가방안에 대해서 깊은 관심을 표명했다.

이밖에도 11일(현지시각)에는 코펜하겐에서 교민간담회를 갖고 14일에는 덴마크의 중대경제범죄검찰청(Public Prosecutor for Serious Economic Crime) 벤트 이자거 니엘슨(Bent Isager Nielsen) 수사국장을 만나 한국의 주요 반부패 제도와 정책을 소개하고, 덴마크가 세계 최고 수준의 청렴도를 유지해온 배경과 우리나라의 청렴도 제고방안에 대해서 이야기를 나눴다.

이번 유럽 일정동안 김대식 부위원장의 정책설명회는 최근 공정사회를 화두로 추진하고 있는 한국정부의 다각적인 청렴정책 추진의지를 널리 알리고 유럽 선진국의 반부패기구와의 협력 강화에 기여하는 계기가 되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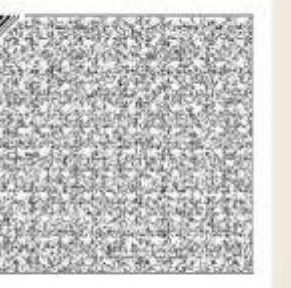
김대식 부위원장이 덴마크 중대경제범죄검찰청 고위관계관을 만나 한국 정부의 청렴도 제고 노력 등에 대해 설명한 후 기념패를 전달하고 있다.



청렴한 세상, 공정한 사회 구현을 향해!

— 2011 고위공직자 청렴도 평가 시행

올해 초 감사원이 밝힌 ‘카지노 상습 도박 공무원’ 370여 명. 이 중에는 차관보급 1명을 포함 5급 이상 고위공직자 8명, 공공기관 임직원 10명이 끼어있다. 이에 앞서 전 경찰청장을 비롯 경찰 수뇌부들이 뇌물수수 혐의로 검찰에 소환되는 부끄러운 일도 있었다. 특히 이 사건에는 전직 장·차관 및 공기업 사장까지 전방위로 연루된 것으로 드러나 국민들의 분노를 자아냈다. 이런 일들을 언제까지 봐야하는 걸까? 그래서 실시되는 것이 바로 ‘고위공직자 청렴도 평가’다.



고위 공직자들의 비리를 밝혀내고 처벌하는 것은 물론 중요하다. 하지만 그보다 더 중요한 것은 비리를 사전에 예방할 수 있는 시스템과 문화를 뿌리내리도록 하는 일이다. 처벌은 쉽지만 예방이 쉽지 않은 것이 부정부패다. 선진국과 개발도상국의 차이는 바로 여기에서 나타난다는 게 많은 전문가들의 공통된 지적이다.

우리 정부의 부패척결도 ‘처벌’에서 ‘인식의 전환’과 사전 스크린을 통한 ‘예방’ 쪽으로 이동하고 있다. 김영란 국민권익위원장은 최근 뉴욕을 방문해 반기문 유엔 사무총장과 면담한 자리에서 “한국도 국제적 수준에 맞춰 부패에 대한 인식을 바꾸기 위해 노력했고, 기관 청렴도 뿐 아니라 고위공직자의 청렴도 평가를 실시하여 고위공직자부터 솔선수범하도록 하고 있다”고 말했다.

권익위 역시 고위공직자의 청렴 리더십을 확립하는 것을 2011년 역점과제로 선정하고 관련 사업에 박차를 가하기 시작했다. 대표적인 것이 바로 ‘고위공직자 청렴도 평가’다. 아울러 고위공직자 범위를 정해 1년 이내에 이들이 청렴교육을 이수토록 했다.

여기에 선출직 공무원인 지방의회 의원의 행동기준이 되는 ‘지방의회의원 행동강령’이 본격 시행되는가하면, 이와 별도로 알선·청탁을 근절하기 위한 전방위 대책도 추진된다. 바야흐로 공직사회 전반에 걸쳐 부패 근절을 위한 대대적인 변화의 바람이 불고 있는 것이다.

고위공직자 청렴도 평가, 왜 필요한가

‘윗물이 맑아야 아랫물이 맑다’는 속담처럼, 사회 지도층의 윤리의식과 청렴의식이 확립돼 있지 않다면 정부가 추진하는 각종 반부패 정책들은 국민들의 지지를 받기 어렵다. 특히 ‘국민의 공복’으로 불리는 공무원, 그 중에서도 고위공직자들과 공공기관 기관장들의 청렴도는 해당 사회의 선진화 수준을 가늠할 수 있게 해 주는 척도라고 볼 수 있다. 하지만 안타깝게도 고위 공직자들이 연루된 비리 관련 뉴스가 곳곳에서 불거져 나오고 있다.

실제 권익위가 지난해 11월 일반 국민들을 상대로 부패 인식도 조사를 실시한 결과, 국민들은 한국사회의 부패유발 주체로 정치인(52.4%) 다음으로 고위공직자(26.3%)를 꼽았다. 이는 기업인(8.4%)에 대한 부패 인식도를 훨씬 능가하는 수치로 국민들의 눈에는 고위공직자들이 부정적인 이미지로 각인돼 있음을 보여주는 것이다.

고위공직자 청렴도 평가의 배경과 관련해 권익위 관계자는 “고위공직자의



김영란 위원장이 "2011년 반부패 청렴대책 추진지침 전달회"에서 고위공직자의 청탁수수 행위 근절을 강조하는 내용의 인사말을 하고 있다.

“한국도 국제적 수준에 맞춰 부패에 대한 인식을 바꾸기 위해 노력했고, 기관 청렴도 뿐 아니라 고위공직자의 청렴도 평가를 실시하여 고위공직자부터 솔선수범하도록 하고 있다.”

비리가 끊이지 않는 상황에서 고위공직자의 청렴성 유지 및 솔선수범을 유도해 국가청렴도 제고의 전기를 마련하기 위한 것”이라고 강조했다. 특히 기존의 공공기관 청렴도 평가가 주로 중·하위직의 업무를 대상으로 하고 있어, 고위공직자에 대한 별도의 평가제도가 필요하다는 목소리가 높았다. 김영란 국민권익위원장은 올해 초 알선·인사 청탁 등 부패 바이러스를 근절하기 위해 무엇보다 고위공직자의 솔선수범이 중요한 만큼 올 한해는 고위공직자의 청렴문화 확산과 공직사회의 관행적 부조리 근절에 나서겠다는 의지를 천명한 바 있다.

물론 현재 장관급 이상 고위직에 진출하려는 인사들을 대상으로 국회 인사 청문회 같은 인사검증 제도가 있기는 하다.

하지만 기존 공공기관 청렴도 평가는 주로 중·하위직의 업무를 대상으로 하고 있어, 기관장 등 고위공직자 개인에 대한 별도의 청렴도 평가가 필요하다는 목소리가 높았다.

김영란 위원장은 올해 초 알선·인사 청탁 등 부패 바이러스를 근절하기 위해 무엇보다 고위공직자의 솔선수범이 중요한 만큼 올 한해는 고위공직

자의 청렴문화 확산과 공직사회의 관행적 부조리 근절에 나서겠다는 의지를 천명한 바 있다. 물론 현재 장관급 이상 고위직에 진출하려는 인사들을 대상으로 국회 인사청문회 같은 인사검증 제도가 있기는 하다. 하지만 인사검증이 고위 공직 후보자들에 대한 과거 장기간의 행태와 업무자질, 능력, 역량 등을 종합적, 집중적으로 점검하는 방식이라면 청렴도 평가는 현재 고위 공직에 재직중인 사람들에 대해 최근 1년간을 대상기간으로 청렴성을 측정하는 것이 주요 목적이라는 점에서 다소 차이점이 있다.

고위공직자 청렴도 평가 수행 절차

평가계획 수립	평가 주관부서 결정 : 평가 책임자, 담당자 등 평가부문 및 평가지표 선정 : 외부평가, 계량평가 실시 여부 등 평가대상 설정 : 평가대상 범위 및 평가대상자 조사방법 : 자체(설문지) 실시 또는 외부 용역 등 결과활용 방안 : 인사·성과 등 반영 여부, 공개범위	약1주 소요
조사준비	평가단 구성 : 피평가자별 내·외부 평가자 선정 조사매체 준비 : 설문지 인쇄(자체 설문지 조사의 경우), 조사입력시스템 구성(온라인 조사의 경우) 조사실시에 대한 안내	약2주 소요
조사실시	조사 진척도 점검 : 응답률 저조시 응답 독려 조사 장애발생시 대처	약1주 소요
결과집계 및 활용	조사자료 집계 평가결과 기관장 보고, 본인 통보, 평가결과 인사, 성과 등에 반영 등	약1주 소요
사후조치	평가개요, 평가결과 통계치 등 권익위로 송부 차년도 조사를 위한 업무계획, 예산 편성 등	약1주 소요



고위공직자 청렴도 평가모형 설명회

누구를 어떻게 평가하나

고위 공직자들에 대한 청렴도 평가는 공직사회 윤리의식 강화, 나아가 우리사회 전반의 청렴문화 확산을 위해 반드시 필요하다고 볼 수 있다. 그렇다면 과연 청렴도 평가를 어떻게 할 것인가 하는 문제 역시 중요한 과제로 남는다. 권익위는 이를 위해 지난 2009년 12월 청렴도 평가모델 개발에 착수해 그간 외부 연구용역과 전문가회의를 통한 모형 검증 등을 통해 최근 ‘고위공직자 청렴도 평가 표준모형’ 개발을 완료하고 각 기관에 보급했다.

평가대상이 되는 고위공직자는 일률적으로 정하지 않고 각 기관의 특성에 따라 자율적으로 결정하도록 했다. 예를 들면, 중앙행정기관의 경우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공직자들이 대상이 될 수 있고, 지방자치단체 및 교육청은 실·국장급 이상, 공직유관단체는 상근임원 및 본부장급 이상이 청렴도 평가를 받을 수 있다. 다만 지자체장 등 선출직 공무원이나 국회 인사청문회의 검증절차를 거쳐 임명되는 기관장이나 정무직 고위 공무원은 청렴도 평가 대상에서 제외된다.

평가 대상 못지않게 중요한 것이 바로 고위공직자들의 청렴도를 ‘어떻게’ 평가하느냐 하는 것. 이는 평가방법의 객관성과 공정성을 담보하지 못할 경우 공직사회 전반의 청렴문화 확산에도 제동이 걸릴 수 있기 때문이다. 때문에 권익위도 전문기관에 연구용역을 의뢰하고 여러 차례의 시험평가 등을 통해 평가모델을 세밀하게 다듬었다.

‘고위공직자 청렴도 평가 표준모형’을 보면, 평가지표는 전체 23개 항목(설문항목 19개·계량항목 4개)로 구성돼 있다. 청렴도 평가는 기본적으로 ‘설문평가’를 바탕으로 하고, 객관적인 점수화가 가능한 ‘계량항목’에 해당하는 부분에는 감점 반영토록 하고 있다.

설문평가의 경우 크게 ‘직무청렴성’과 ‘사회적 책임’을 측정하는 세부 평가지표 19개로 구성돼 있다. 예를 들어 직무 청렴성 중 공정한 직무를 수행했는지 여부를 평가하기 위해 ‘내부직원에 대한 위법·부당한 업무지시’, ‘대외적인 알선·청탁 및 특혜제공’, ‘인사업무의 불공정성 여부’, ‘업무책임 및 회피·전가 여부’ 등에 대한 설문조사를 실시한다. 또 업무 관련자로부터 향응이나 편의를 제공받았는지, 업무추진비 등을 개인적 용도로 사용했는지 여부 등에 대한 설문항목도 있다. 이밖에 도박·음주 등 사생활 문란, 고급 유흥업소 출입, 과도한 경조금품 수수 등 고위공직자로서



사회적 책임을 다하고 청렴한 공직생활을 실천하고 있는지를 알아보는 설문도 있다. 각 항목에 대한 설문은 기관 내부 설문평가(75%)와 외부 설문평가(25%)를 병행해 신뢰도를 높였으며, 자기평가는 참고로만 활용된다. 청렴도 평가 시 감점 등에 활용되는 계량평가 부문의 경우 객관적인 자료를 토대로 측정된다. 즉, 국세·지방세 등 세금 체납과, 음주운전 등 도로교통법 위반 여부, 복무·행동강령 위반으로 인한 징계, 재산 불성실 신고 등 명확히 드러난 객관적 자료를 토대로 점수화한다.

다양한 인원으로 구성된 내외부 평가단의 정확한 평가

입체적이고 보다 정확한 평가를 위해 설문평가를 수행할 내부 및 외부 평가단 구성도 다양한 관계자들이 참여할 수 있도록 제도화했다. 내부평가단의 경우 상위, 동료, 하위직원들로 구성되는데 평가 대상 고위공직자와 같은 부서에서 최소 3개월 이상 함께 근무한 직원들을 포함해 20명이 평가단으로 참여한다. 외부 평가단은 평가 대상자와 업무 관련이 있는 전문가와 민원인, 공직자 등을 대상으로 10명 정도로 구성된다. 한발 더 나아가 평가단은 평가위원회, 청렴 옴부즈만 등 객관적 인사를 통해 검증받는 등 공정성과 중립성 유지를 위한 장치도 추가로 마련했다.

이밖에 내·외부 설문평가는 각종 설문 등에 널리 이용되는 '리커트 척도'의 질문을 좀 더 구체화함으로써 청렴도 평가가 자칫 '이미지 평가'로 왜곡되는 것을 방지하려는 노력도 엿보인다. 참고사항인 자기평가는 자가진단체크리스트를 통해 30개 문항에 대한 자기평가를 실시하며 본인에게만 제공된다.

평가시행 시기와 관련, 권익위는 각 기관이 자율적으로 결정토록 했으나 평가시행기관에 대해서는 부패방지 시책평가에 이를 반영하는 등 인센티브를 부여해 기관들의 참여를 독려한다는 방침이다. 고위공직자에 대한

평가를 시행하는 기관의 경우 매년 1~7월 사이에 평가를 완료해야 하며 평가 실시 전 사전계획을 수립하도록 했다.

만약 평가 대상 고위공직자가 자신에 대한 평가결과를 수용할 수 없을 경우에는 이의를 제기할 수도 있다. 이 경우 내부적으로 평가과정, 자료 처리 등 전반에 대해 오류를 점검하고 결과통보, 통계적 오류가 있을 경우에는 시정 조치를 취할 수 있도록 했다.

“공공기관 청렴도 평가와 더불어 고위공직자 청렴도 평가가 사회 전반에 청렴문화가 확산되는데 중요한 밑거름이 되기를 기대한다.”

공직사회발(發) 청렴문화 확산 기대

고위공직자 청렴도 평가는 평가대상자 선정과 평가방법의 객관성, 공정성 확보 등의 문제로 인해 그동안 상당히 신중하게 추진되어온 것이 사실이다. 타 기관의 반발과 불만이 있었던 것도 부인할 수 없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고위 공직자들이 청렴문화 확산에 솔선수범해야 한다는 당위성은 분명한 만큼, 오랜 산고 끝에 제시된 이번 청렴도 평가모형을 바탕으로 향후 청렴문화 확산이 가속화될 것으로 기대된다. 물론 이번에 제시된 고위공직자 청렴도 평가 모델이 그 자체로 완벽한 것은 아니다. 이 모델이 각 기관의 특수성과 개개인의 업무 특성을 모두 반영하고 있는 것은 아니기 때문이다. 권익위가 청렴도 평가를 각 기관 자율평가 체제로 전환한 것도 이런 이유 때문이다. 권익위는 기관별 자율평가 시행 후 나타나는 문제점과 개선의견을 수렴해 지속적으로 모형을 개선하고 평가 인프라를 구축할 것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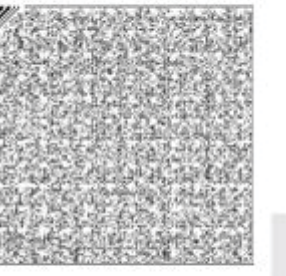
향후 고위공직자 청렴도 평가가 제대로 정착된다면 산업화 시대의 부정적 잔재로 인식돼온 공직사회의 부정부패를 완전히 근절하는데도 상당부분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 중요한 것은 실천의지다. 공공기관 청렴도 평가와 더불어 고위공직자 청렴도 평가가 사회 전반에 청렴문화가 확산되는데 중요한 밑거름이 되기를 기대한다.



지난 해 11월 국민권익위원회는 지방의원들이 지켜야 할 행위 기준인 '지방의회의원 행동강령'을 국무회의 의결을 거쳐 공포했다. 이후 24개 조문으로 이루어진 '지방의회의원 행동강령'이 2011년 2월 3일부터 시행되고 있다. 일부 지방의회가 아직까지 반대 의견을 보이고는 있지만, 근본적인 필요성에 대한 공감대는 형성되어 있다. 바로 '청렴한 세상'을 바라는 국민들이 있기 때문이다.

지방의회의원 행동강령 시행

지방의회의원의 청렴하고 공정한 직무수행 기대



“한 조사기관 발표에서는 지방의원의 청렴정도에 대해
일반국민 응답자의 절반 정도가 ‘낮다’고 인식한 것으로 드러났다.
‘높다’는 인식은 불과 11.5%에 지나지 않았다.”

지방의회의원 행동강령, 지방의원용 맞춤형 청렴 길라잡이

지방의원이 지켜야 할 행위기준인 ‘지방의회의원 행동강령’이 지난 2월 3일부터 시행되고 있다.

지방의원은 2003년 ‘공무원 행동강령’ 제정 당시부터 동 행동강령을 적용 받아 왔다. 그러나 ‘공무원 행동강령’이 일반직 공무원을 중심으로 설계되어, 선출직 공무원인 지방의원에게 이를 직접 적용하는 데 여러 한계가 있었던 것도 사실이다. 따라서, 이러한 한계를 극복하고 지방의회 의원의 신분과 직무에 보다 적합한 행위기준을 제시하고자 ‘지방의회의원 행동강령’을 제정하게 된 것이다.

많은 지방의원들이 자치단체 및 각종 공직유관단체의 위원회 위원으로 위촉되어 활동하고 있다. 그 자체의 옳고 그름은 논외로 하더라도, 이때 자신의 직무와 직접 관련된 사항이나 이해관계가 있는 사항에 직간접적으로 관여하여 부당한 영향력을 행사하는 일이 일어나기도 해 사회적 문제가 되기도 했다. 단적인 예로 2006년 9월 한 신문의 보도에 의하면 ○○시 도시계획심의위원회 위원인 시의원A는 조합장으로부터 재개발지구로 지정해 달라는 청탁과 함께 1천만 원을 받은 혐의로 입건됐다. 또 2009년에는 시의회 도시관리위원회 소속 B의원이 △△시 도시계획심의위원회 위원으로 활동하면서 마을공원 부지선정과 관련되어 비리를 저지른 사례가 있다.

이와 같이 지방의원들이 자신의 직무를 매개로 집행부 업무에 관여하고 각종 이권에 개입하는 사례가 반복됨에 따라, 지방의원에 대한 일반국민들의 신뢰도가 심각한 수준인 것으로 나타났다. 한 조사기관 발표에 따르면 지방의원의 청렴정도에 대해 일반국민 응답자의 절반 정도가 ‘낮다’고 인식하고 있는 것으로 드러났다. ‘높다’는 인식은 불과 11.5%에 지나지 않았다.

공정하고 투명한 사회를 위한 노력의 일환

국민의 신뢰 회복과 청렴한 의정활동을 돕고자 만들어진 「지방의회의원

행동강령」은 지방의원이 지켜야 할 15개의 행위기준과 행동강령 운영에 관한 사항 등을 포함하여 총 24개 조문으로 구성되어 있다.

우선 직무관련 위원회 활동의 제한(제7조) 규정은 지방자치단체 및 공직 유관단체의 위원회 위원으로 위촉된 경우라도 소관 상임위원회의 직무와 관련된 사항이거나 이해관계가 있는 사항 등에 대해서는 심의·의결을 회피하도록 하였다. 일부 지방의원이 자치단체 등의 각종 위원회 위원으로 활동하면서 본인 및 특정 집단의 이익을 위해 직무의 공정성을 해치는 행위가 이로써 근절될 것으로 기대된다. 또 이해관계자나 특정 집단이 자신의 이익 관철을 위해 지방의원에게 금품 등을 건네고 청탁하는 행위도 방지될 것이다.

외부 기관·단체 지원 국내외 활동 제한(제13조) 규정에서는 지방의원이 직무상 다른 기관·단체로부터 여비를 지급받아 국내외 활동을 하는 경우에는 미리 의장의 승인을 받도록 하였다. 이 규정의 시행으로 그동안 지적되어 온 외부 지원을 통한 외유성 국외활동 행위가 억제되고, 지원받은 기관·단체의 이익을 위한 부당한 영향력 행사를 막을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외부강의·회의 등의 신고(제14조) 규정은 지방의원이 대가를 받고 외부 강의·회의 등을 할 때, 미리 의장에게 신고하도록 한 것으로 지방자치단체장을 포함한 모든 공직자는 이미 공무원 행동강령에 의해 신고의무가 있다. 이 규정은 대가를 받는 외부 활동의 투명성을 확보하여 지나친 외부강의로 의정활동을 소홀히 하거나 고액의 강의를 지급한 기관의 이익을 위해 부당한 영향력을 행사하는 등의 부조리를 예방하기 위한 것이다.

또한, 제22조에서는 각 지방의회별 행동강령이 잘 시행될 수 있도록 행동강령운영 자문위원회를 설치토록 했다. 이는 행동강령 위반행위 신고 접수 및 조사·처리, 행동강령의 교육·상담 등에 대한 의장의 자문에 응하기 위한 기구로, 그 구성에 있어 민간위원을 1/2이상 되도록 함으로써 공정하고 투명한 운영이 가능하도록 하였다.



지방의원 행동강령은 지방자치권 침해?

‘지방의원 행동강령’ 시행 이후 이에 대한 반발도 있다. 동 행동강령이 지방의원의 의정활동을 이중으로 규제하고, 지방자치권을 침해할 뿐 아니라 의원의 전문성 활용을 억제하는 등의 문제가 있다는 것이다.

그러나 행정사무 감사·조사 대상 업무의 집행·결정과정에 지방의원이 직접 참여할 경우 전형적인 이해충돌 문제가 발생하게 될 뿐 아니라, 의회의 집행부 견제 기능 마저 무력화될 우려가 크다. 의회는 기본적인 입법기능 외에 행정부에 대한 감시·견제 기능을 가지고 있다. 의회가 직접 행정부의 업무집행에 참여하지는 않는다. 이는 ‘견제와 균형’이라는 권력분립 원칙상 당연한 질서로서, 국회의 경우에도 의원이 행정부의 각종 위원회 위원으로 참여하는 경우는 없었다.

또한 지방자치권 침해라는 주장과 관련해서는, 부패방지업무는 국가적 중요사항으로서 이를 주민복리에 관한 자치단체의 고유사무로 보기 어렵고, 실제 지방의원에게 적용되는 지방의회별 행동강령의 제정은 대통령령의 범위 내에서 각 지방의회가 의회별 특성을 고려하여 정하도록 자율성을 부여하고 있으므로 ‘지방의원 행동강령’의 제정이 지방자치권을 침해하고 자율권의 본질적 내용을 제한하는 것이라고는 볼 수 없는 것이다.

‘지방의원 행동강령’은 지방의원이 직무수행과정에서 반드시 지켜야 할 것, 해야 할 것과 하지 말아야 할 것을 명확하게 제시함으로써 지방의회 스스로 부패를 예방하고 청렴한 직무수행을 할 수 있도록 돕기 위해 제정된 것이다. 지방의회가 이러한 취지와 ‘공직자의 청렴’에 대한 주민들의 요구에 부응하여 깨끗한 공직문화 확립에 앞장서 줄 것으로 기대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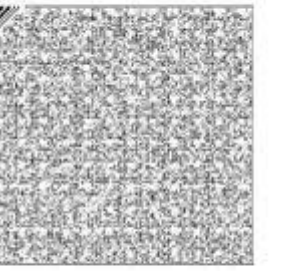
넓은 시야를 갖고 청렴한 대한민국을 위해 노력해야

지난 2월 14일 경기중소기업종합지원센터에서 열린 ‘지방의원 행동강령’의 조기 정착 및 지방의회 의원 윤리성 제고 방안에 대한 세미나는 ‘당연한 질서’에 대해 이야기를 나누는 자리였다. 어느 정도의 시각차는 있었지만, 참가한 이들은 ‘지방의원 행동강령’의 필요성에는 대체적으로 공감했다. 또 지방의회가 스스로 행동강령에 버금가는 규정을 제정하거나 기존 윤리강령과 통합해 발전시키는 모델을 제시할 필요 있다는 발제자 의견에 참가 의원도 동감을 표시하였다.

현재 행동강령 위반행위는 누구든지 지방의회 의장 또는 국민권익위에 신고할 수 있도록 되어있고 확인된 위반행위에 대하여는 지방의회가 자율적으로 「지방자치법」에 따른 징계 등 필요 조치를 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또 지방의회별 행동강령은 각 지방의회의 형편에 따라 조례, 규칙 등으로 제정할 수 있도록 하였고, ‘지방의원 윤리강령 및 윤리실천규범’과 통합할 필요가 있는 경우에는 이를 통합하여 운영하는 것도 가능하다.

그 밖에도 제정내용에 대해서는 표준안을 참고하여 지방의회별 특성을 반영하여 제정하도록 하였으며, 특히 금품 등을 받을 수 있는 직무활동의 유형 및 금액 상한선, 경조금품 수수 가능 유형 및 금액 상한선 등에 대해서는 현행 의원 등 관계자들의 의견을 수렴하여 의장이 별도로 정할 수 있도록 했다. 모두 지방의회와 지방의원의 특성 및 자율을 배려한 규정들이다.

국민권익위원회는 지방의회가 스스로 부패를 예방하고 청렴하게 직무를 수행해 나갈 수 있도록 ‘청렴한 세상’을 위한 지원을 아끼지 않을 것이다.



HOPE EMPATHY

희망공감

국민의

제3회 국민신문고 대상에서 만난 자랑스러운 얼굴

국민에 의한

경찰의 위치추적 권한, 약인가 독인가?

국민을 위한

그대 이름은 슈퍼맨

지켜줘요! 국민권익!

국민권익! 청원 내수음 북이면 12개 마을 진출입로 설치

오피니언

평등이 행복을 낳는다

제3회 국민신문고 대상에서 만난 자랑스러운 얼굴

- 기업회계감사 모범사례로 국민포장 수상한 서학수 이사
- 근정포장 수상자 조국선 변동초등학교 교사

지난 2월 25일 프레스센터 국제회의장에는 대한민국의 자랑스러운 얼굴들이 등장했다. 반부패 · 청렴문화 확산에 앞장선 개인과 기관 대표들이 한 자리에 모였다. 올해로 세 번째, ‘청렴한세상’을 꿈꾸는 국민신문고 대상이 열린 것이다. 국민신문고 대상은 사회 각 분야에서 국민의 고충을 해결하고, 반부패 · 청렴문화 확산에 헌신적으로 이바지한 기관과 개인을 발굴해 포상하는 것으로 조선시대 신문고 정신을 발전적으로 계승하고 있다. 올해 제3회 국민신문고대상은 옴부즈만과 부패방지부문, 민원업무 등 3개 부분으로 나뉘어 개인 85명과 단체 11곳에 수상의 영광이 돌아갔다. 그중에서도 개인 수상의 영광을 누린 두 사람을 〈국민권익〉이 만나보았다.

자본주의의 파수꾼으로 정확한 회계 업무 수행한 서학수 이사

“7,000명의 소액주주들을 생각하면 착잡한 심정입니다.”

축하를 건네는 이야기에 먼저 미안하다는 이야기부터 꺼내는 서학수 이
사. 국민신문고대상을 수상한 그는 네오세미테크의 분식사실을 밝혀 미국

의 엔론사태처럼 대형분식회계 사건으로 번질 수 있었던 일을 사전에 막았다. 이는 감사인으로서는 독립성을 지킬 수 있었던 일로, 타의 모범이 되는 사례가 아닐 수 없다. 특히 코스닥 우회상장의 허점을 지적하여 우회상장제도를 개선하도록 하였다는 측면이 높게 평가받아 국민 포장을 수상하게 됐다.

네오세미테크는 퇴출 직전 시가총액이 4,700억 원(코스닥 27위)이었고 한때 코스닥 시가총액 7위까지 올라갔던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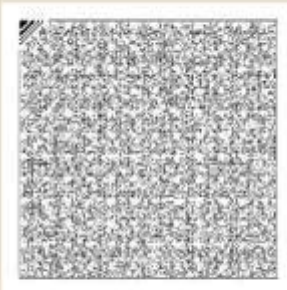
태양광업체의 선두주자였다. 이

업체는 2009년 10월 코스닥에 우회상장한 기업으로 우회상장과 주가부양 등을 위하여 대형 분식회계를 하게 되었다. 감사인인 서학수 대표에게 제출한 이 회사의 2009회계연도 재무제표에는 자산총계 3,100억 원, 매출액 1,450억 원, 당기순이익 250억 원이 적혀있었다. 그러나 대부분 분식의 결과였으며 실제 자산이나 매출액은 1/10에 지나지 않았다. 무엇보다 당기순이익도 220억 원의 순손실인 것이 드러났다. 이러한 사실을 발견한 서학수 이사는 감사의견 거절을 표명하였으며, 그 결과 네오세미테크는 2010년 8월 23일부로 코스닥에서 퇴출되었다. 이 과정에서 이러한 사실을 모르는 7,000여명의 소액주주들이 금융감독원, 증권거래소, 대주회계법인에 항의하고 큰 소동이 일어났다.

“그 사이 협박과 위협을 받기도 했죠. 아내는 처가로 피신하기 까지 했습니다. 네오세미테크의 회유와 거액의 재감사 등 유혹이 있었죠. 분명 힘든 시기였습니다. 하지만 그대로 포기하면 더 많은 피해가 날 거란 건 불 보듯 뻔했습니다.”

서학수 이사는 더 많은 투자자들의 손실을 막고, 더 큰 자본시장의 혼란





을 막기 위하여 의견을 굽히지 않았다. 무엇보다 네오세미테크의 분식규모나 추세는 그냥 두고 볼 수 있는 게 아니었다. 결국 네오세미테크는 코스닥에서 퇴출되었고, 이후 한국거래소는 코스닥 우회상장 요건을 강화하여 우회상장제도를 보완하게 되었다.

이처럼 보람있는 일을 해낸 서학수 이사. 그에게 우리나라의 청렴도에 대한 생각을 묻자, 직언(直言)이 쏟아졌다.

“우리나라가 깨끗하고 부패가 없다면 저 같은 공인회계사가 이런 큰 상을 받지 못했을 것입니다. 그게 바로 문제가 있다는 반증 아닐까요?”

서학수 이사는 ‘앞으로 기업들이 저한테 감사를 받지 않으려고 할텐데’라며 씩씩하게 웃어보였다. 그리고 말을 이었다.

“경제측면에서 보면 횡령, 대기업의 비자금조성, 분식회계로 인한 사기대출과 유상증자 등이 있으며, 이러한 부패를 막기 위해서 저는 앞장서서 자본시장의 파수꾼의 역할을 다할 것입니다.”

든든한 목소리로 이야기하는 서학수 이사. 그와 같은 사람이 있어 우리가 꿈꾸는 ‘청렴한 세상’이 가능한 것 아닐까.

우리 아이들의 청렴 교육을 책임지는 진짜 선생님

“훈장이니 포장이니 하는 큰 상을 현직에 있는 동안 받게 될 줄은 몰랐습니다. 그만큼 기쁘지만, 제가 한 일이 그렇게 대단한 일이라고는 생각하지 않아요. 아이들이 청렴으로 하나 될 수 있도록 저뿐 아니라 다른 선생님들과 학부모님들이 모두 노력한 결과이니까요.”

대전 변동초등학교에서 2010년 3월 1일부터 청렴교육연구학교를 맡아 온 조국선 교사. 그녀는 국민권익위원회가 운영하는 청렴교육연구학교 사업에서 다양한 청렴캠페인 활동을 펼친 공로로 지난 2월 25일 제3회 국민신문고대상에서 근정포장을 받았다. 담담하게 수상 소감을 말한 그녀지만 처음 청렴연구시범학교를 운영 주무를 맡게 됐을 때, 그녀는 막막했다. 선행 연구학교들도 없어 도움 받을 곳이 마땅치 않았기 때문이다. 어른들도 ‘청렴’을 실천하기 쉽지 않은데 아이들한테 가르쳐야 한다니 어디부터 시작해야 할지 몰랐던 것이다.

“결론은 우리학교 나름의 청렴연구시범학교를 운영하는 것이었어요. 저희 스스로 아이디어들을 노트에 적어나가면서 토론하고 이야기하고 우리학교에 적합한 연구주제를 찾아나갔죠.”

그리고 그녀가 동료들과 함께 정한 주제가 바로 ‘선비공동체 프로그램’이

었다. 이는 지역 명칭인 ‘갯골’에서 떠올린 것으로

갯을 쓰는 선비의 정신을 따라 청렴교육에

접근해보자는 취지가 담겨있다. 조국선 교

사는 프로그램에 따라 각 학급 학생들

이 스스로 생활 규

칙을 정해 운영하는 ‘갯골 향약’을 추진하고, 학생 개인별 ‘칭찬통장’과 학급의 ‘칭찬릴레이기록부’를 통해 학생들의 실천을 강조해 나갔다. 그리고 이를 잘 실천한 아이들을 매월 ‘이달의 으뜸 꼬마선비’로 표창해 호응을 얻어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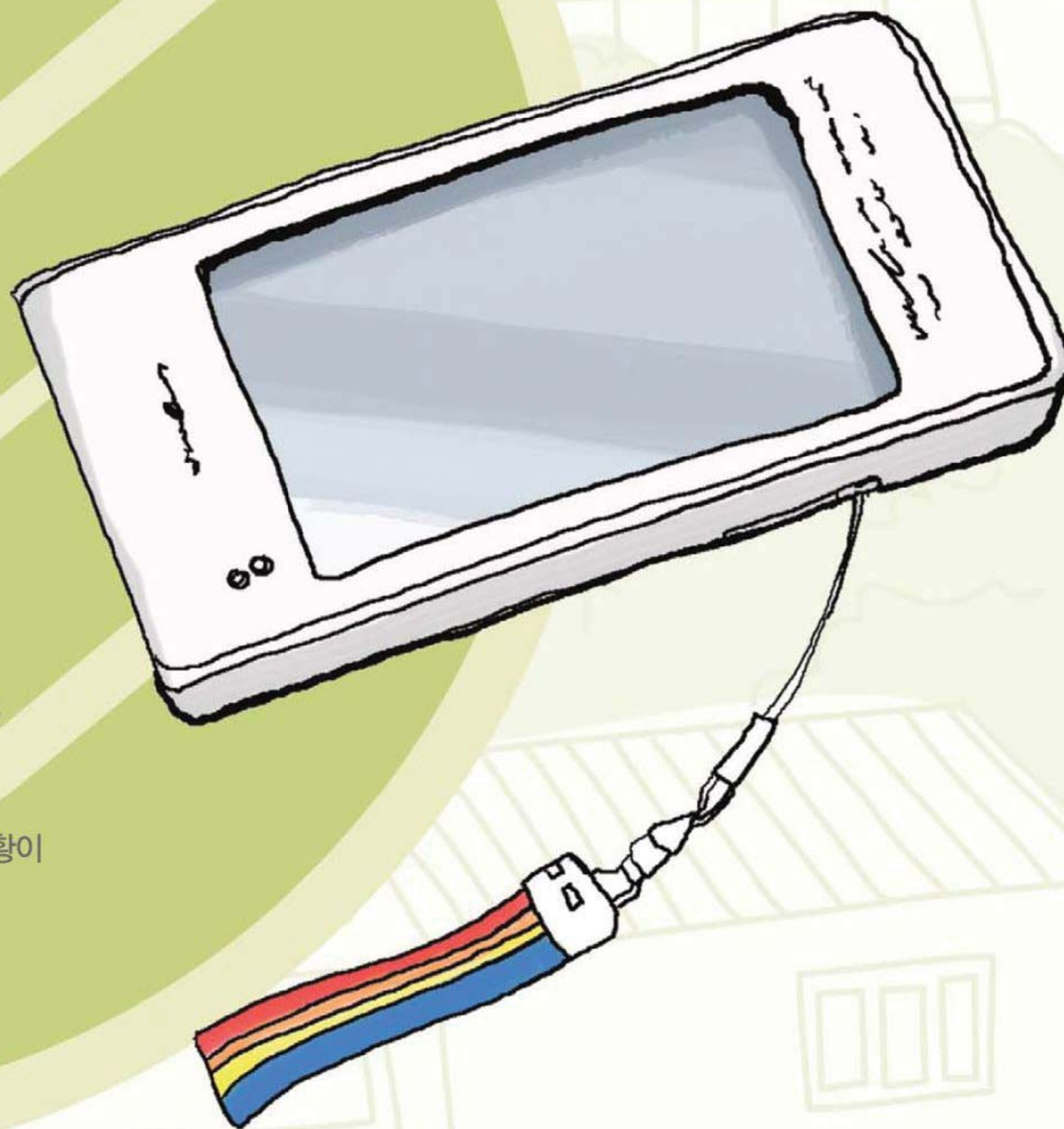
“이와 같은 과정에서 가장 고민했던 건 바로 아이들이 어떻게 하면 청렴의 의미를 쉽게 이해하면서 청렴의식을 내면화할 수 있을까 하는 거였어요. 단순히 선생님이 시키니까 하는 것이 아니라, 아이들 스스로 ‘청렴’을 인식할 수 있어야 진짜 교육효과가 생기는 거니까요.”

조국선 교사는 고민 끝에 아이들과 함께 월별 ‘꼬마선비 한마당’ 학예행사를 기획하게 되었다. 연중 총 18가지 청렴 학예행사를 추진했는데, 이를 학생들이 주도하고 직접 참여하게 한 것이다. 청렴명함만들기 대회, 맑은 마음 동요부르기 대회, 청렴 독서골든벨, 꼬마선비 청렴연극제 등의 활동 중심 행사는 높은 호응을 얻으며 아이들에게 청렴에 대한 관심을 이끌어내는 데 성공했다. 특히 직접 극본을 짜고 연습했던 청렴연극제는 학생들이 청렴에 대한 추상적인 관념을 구체적으로 내면화할 수 있는 기회가 되었다. 이런 과정이 주목을 받아 대전 변동초등학교는 지난해 12월 열린 ‘2010년도 청렴연구시범학교 운영성과 발표대회’에서 최우수상의 영예를 얻었다.

“다시 말씀드리지만 이 성과는 저 혼자 이룬 것이 아닙니다. 무엇보다 우리 학생들, 학부모님들의 관심이 있었기에 가능했죠. 앞으로 이들 앞에 부끄럽지 않을, 언제 어디서나 뚝뚝하고 당당한 교사가 되겠습니다.”

청렴과 비견될 또 하나의 덕목을 꼽는다면 바로 겸손일 것이다. 스스로를 낮추고 더 노력하겠다는 조국선 교사. 그녀가 가르치는 아이들이 살아갈 공정한 사회가 기대 된다.





누군가 당신의 위치를 알고 있다면
 기분이 어떨까? 얼마 전 화제가 되었던
 스마트폰 애플리케이션 '오빠민지'를 떠올리면
 누군가에게 위치가 추적되는 일이 썩 기분 좋은 것은
 아님을 알 수 있다. 하지만 낯선 곳에서 길을 잃거나
 위험한 사고를 당해 누군가가 찾아주기를 바라는 상황이
 되어도, 위치추적이 과연 기분 나쁜 일일까?
 이미 기술적으로는 가능해진 시대,
 위치추적 권한에 대한 이야기는
 우리 모두가 고민해야 할 새로운 문제다.

경찰의 위치추적 권한, 약인가 독인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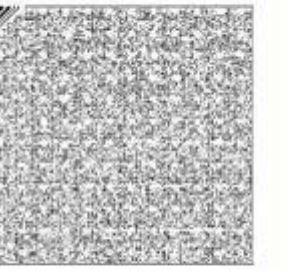
위치추적, 꼭 개인의 권한 침해인 것은 아니다

지난 2월 22일 밤 대전 동구 삼성동, 13세 A군을 비롯한 중학교 1학년생 세 명이 고등학생 6명의 손에 이끌려 어두운 상가 건물 옥상으로 끌려올라갔다. 현금 3만 원과 휴대전화, 25만 원짜리 점퍼를 빼앗은 고등학생들은 A군 등을 각목과 주먹으로 마구 때리기 시작했다. 구타를 못 이기고 바닥에 드러누운 A군을 버려두고 고등학생들은 건물을 내려갔고 다음날 새벽 A군은 싸늘한 시신으로 발견됐다.

A군의 부모는 망연자실했다. 아들을 때린 고등학생들이 시민의 신고로 모두 붙잡혔는데도 아들의 모습은 보이지 않았기 때문이다. A군의 부모는 경찰에 "위치 추적을 해 달라"고 요청했으나 거절당했다. 경찰에 위치추적 권한이 없다는 설명이 따라붙었다. 다시 부모들은 위치추적 권한이 있다는 119에 전화를 걸어 아들의 위치를 확인해 달라고 요청했다. 그런데 119도 거절했다. 위치추적을 할 수 있는 상황에 해당되지 않는다는 것이 이유였다. A군의 부모는 오열했지만 이미 A군은 세상을 떠난 뒤였다.

치안서비스의 질 높일 수 있는 위치추적 권한

누가 잘못했을까. A군이 안타깝게 목숨을 잃는 동안 사실 그 누구도 절차를 지키지 않은 기관은 없다. 각종 수사에 위치추적이 남용될 것을 우려해 입법기관은 수사기관인 경찰에 위치추적 권한 자체를 주지 않았다. 휴대전화 회사와 핫라인으로 연결되는 위치추적



단말기를 보유한 기관은 소방방재청 등 소방당국이나 해양경찰 뿐이다. 그렇다고 신고를 받은 소방서가 잘못된 것도 아니다. ‘위치정보의 보호 및 이용 등에 관한 법률’에서는 자연재해나 각종 사고가 발생했을 때만 제한적으로 위치추적을 허용하도록 되어 있기 때문이다.

하지만 최근 들어 아동, 청소년을 대상으로 한 강력범죄가 연이어 발생하면서 경찰에도 위치추적을 할 수 있는 권한을 줘야 한다는 목소리가 높아지기 시작했다. 사건 발생 초기 피해자가 있는 곳을 위치추적을 통해 빠르고 정확하게 알아낼 수 있다면 조기에 범죄자를 검거하고 피해자가 생기는 것을 막을 수 있다는 논리다. 국회에서도 여야 일부 의원들이 이 같은 내용을 담은 위치정보보호법 개정안을 2008년에 발의한 적이 있다. 경찰이 위치추적 권한을 가지면 각종 강력범죄뿐만 아니라 실종자 수색에도 효율성이 생겨 치안 서비스의 질을 크게 높일 수 있다는 것이 이유였다.

위치추적에 익숙한 세대, ‘위치’는 주고받는 정보일 뿐

경찰은 “수사기관이 위치추적 권한을 남용할 것이라는 우려는 ‘기우’에 가깝다”고 주장한다. “위치추적 권한과 신청 절차를 전과조회와 동등한 방식으로 만들면 됩니다. 반드시 필요할 경우에 한해 전과기록을 조회하고 조회를 신청한 수사자의 기록이 반드시 남도록 하면 남용은 얼마든지 막을 수 있습니다” 경찰청 관계자의 말이다. 경찰이 권한을 가지되 민원인이 신청하는 경우에만 위치추적이 가능하도록 시스템을 만들면 된다는 주장도 있다. 한 위치추적시스템 개발업체 대표는 “경찰이 위치추적을 할 때마다 본인이나 보호자에게 인증번호를 발송하는 등 몇 초 안에 동의 절차를 마칠 수 있는 기술은 이미 개발이 끝나 있다”고 설명한다.

여기에 또 하나. 경찰과 법 개정을 발의한 의원들의 주장에는 ‘위치정보’의 개념이 위치정보보호법이 처음 만들어졌을 때와는 상당히 달라졌다는 ‘배경’도 포함돼 있다. 이 법이 처음 만들어졌던 2005년 당시 위치정보는 개인정보의 한 종류라는 인식이 강했다. 남들에게 알려져서 좋을 것이 없는 정보라는 생각이었다. 게다가 위치정보의 정확도도 떨어졌다. 실종자의 위치 정보가 수십, 수백 미터 반경으로 표시돼 다시 시간을 들여 주변을 수색해야 하는 일이 많

았다. 그러나 통신기술이 발달하고 특히 스마트폰이 널리 보급되면서 위치정보는 정확도가 높아졌다. 동시에 ‘알려주면 유익한’ 정보로 변했다. 실제로 스마트폰 사용자들은 자신이 서 있는 곳 주변 맛집부터 가까운 곳에 있는 이성의 연락처 등 다양한 정보를 얻기 위해 지금도 수없이 자신의 위치 정보를 통신사와 어플리케이션 제작자에게 제공하고 있다.

기술을 제대로 활용하는 것이 권익 지키는 일

물론 이에 반해 경찰 등 수사기관이 위치추적 권한을 가지게 될 경우 적지 않은 부작용이 생길 수 있다는 우려도 있다. 수사기관 내부에서도 이 같은 우려를 잘 알고 있기 때문에 법 개정에 신중한 모습을 보이고 있다. 사실 여러 의원들이 발의한 위치정보보호법 개정안은 현재 법사위에 꽤 오래 계류돼 있다. 일부 의원들이 “경찰이 위치추적을 할 때 검찰의 지휘를 받도록 해야 한다는 조항을 넣어야 한다”고 주장하면서 이를 두고 갑론을박이 벌어지고 있기 때문이다. 의원들은 “경찰이 ‘위치추적 영장’을 발부받을 때만 추적을 할 수 있도록 하거나 최소한 검찰의 지휘를 받도록 하면 남용 우려를 불식시킬 수 있다”고 말한다. 다만 이 같은 보호 절차를 만들 경우 위치추적을 하기까지 걸리는 시간이 길어져 애초의 목적인 ‘강력사건 예방’ 취지가 무색해진다는 이야기도 있다.

어찌되었든 기술이 발전하면서 민간에도 일상적으로 사용되는 위치추적 기술을 수사기관이라는 이유로 활용해서는 안 된다는 논리는 이제 설 자리를 잃고 있다. 사실 이와 같은 논란은 CCTV가 활성화 될 당시에도 있었다. 분명 아직도 인권침해 논란은 있지만, 어두운 골목이 조금 더 안전해졌다는 것도 사실이다.

이를 떠올릴 때 경찰이 위치추적 권한을 시험운용해 보는 시도도 해봄직은 하다. 다만 아직까지 많은 국민과 인권단체들이 우려하는 이유도 이해가 간다. 수사기관의 권력 남용이 여전하다는 인식이 있기 때문이고, 그 중 일부는 사실로 드러날 때가 있기 때문일 것이다. 하지만 시대가 변하면 사람과 제도도 변해야 한다. 그리고 그 변화를 받아들이려는 사람 역시 뼈를 깎는 노력을 통해 구태(舊態)를 씻어내고 ‘새 사람’으로 거듭나야 한다. 그래야 우리가 지키려는 ‘권익’을 제대로 지킬 수 있는 것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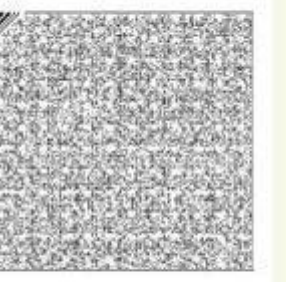


고대 이름은 슈퍼맨

– 국민권익위원회가 찾아준 일상의 행복

내 집 마련이란 부푼 꿈을 안고 새로 이사한 아파트. 지은 지 얼마 되지 않은 아파트 단지와 깔끔한 인테리어, 최신 설비들은 입주자의 마음을 더욱 행복하게 만든다. 하지만 창문을 여는 순간 이제껏 꿈꿨던 아름다운 아파트 생활은 도로 소음 속에 묻혀 버렸다. 그리고 사업시행자와의 끝없는 민원은 시작되었다.





01 김대식 부위원장이 천안 우미린 아파트 주민들이 호소한 교통소음 발생 애로 현장을 둘러보고 있다.



02 박양규 사무관과 입주자 대표 김완호 씨가 방음벽이 설치될 도로변을 살펴보고 있다.

우수한 입지 조건, 그러나...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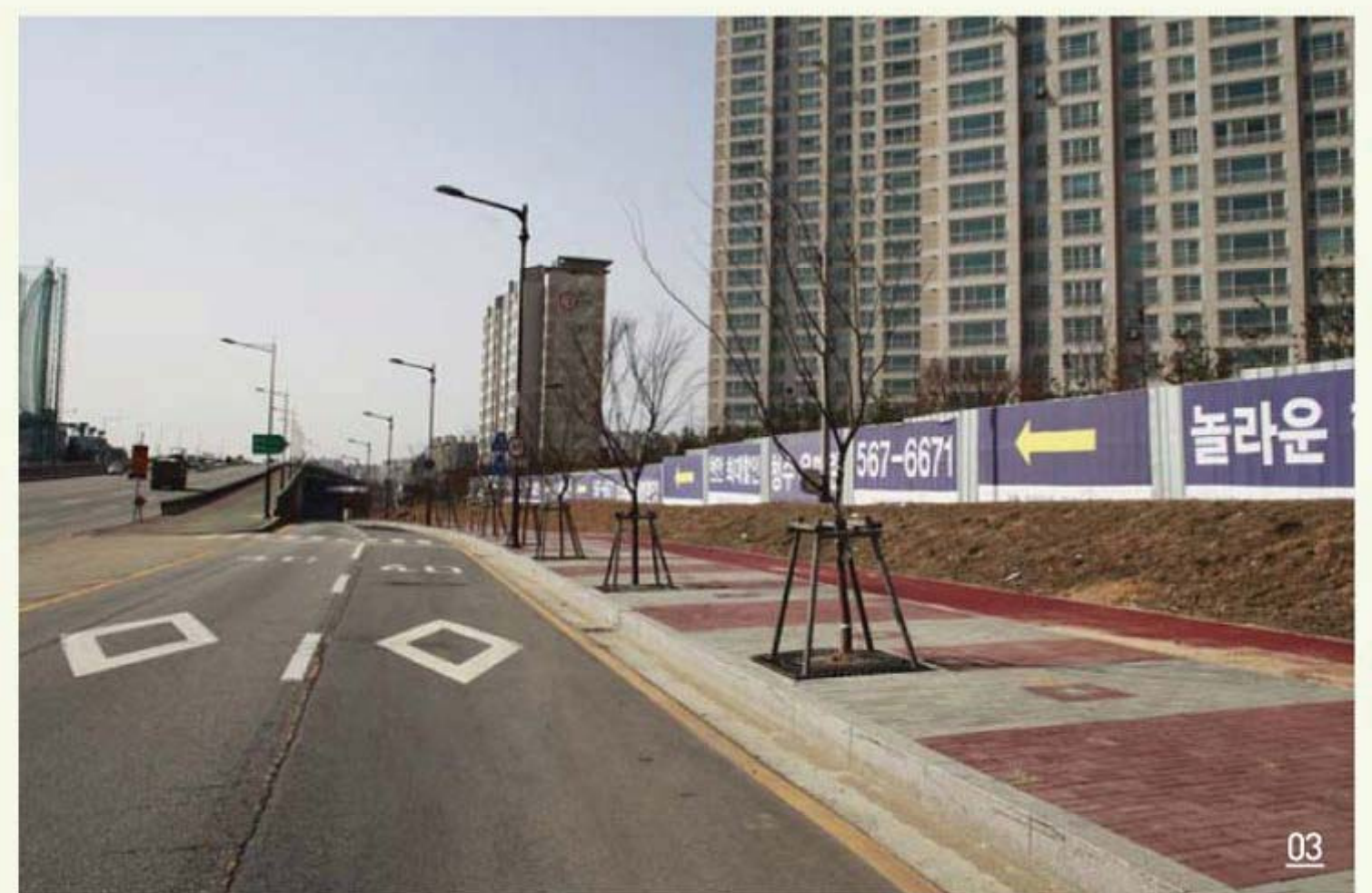
교통의 요충지인 천안을 찾은 것은 늦은 꽃샘추위가 옷깃을 여미게 만드는 3월의 어느 날이었다. 천안아산역에서 목적지인 천안시 동남구 청당동에 위치한 우미린 아파트를 찾아가는 길은 그리 멀지 않았다. 대단위 택지지구 조성으로 주변은 아직도 한참 개발이 진행 중인 곳이 많았고 대단위 아파트 단지들이 이곳저곳에 높은 빌딩숲을 이루고 있었다.

우미린 아파트는 천안시와 한국토지주택공사가 공동으로 조성한 '천안 청수택지개발지구'에 위치해 있다. 이곳에 동지를 튼 724세대는 작년 8월부터 입주를 시작했다. 깨끗한 최신 시설과 잘 다듬어진 주변 조경은 입주하는 사람들의 마음을 사로잡기에 충분했고 천안 시내는 물론 기차역과도 가까워 입지 여건 또한 입주자들의 선택을 주저하지 않게 만들었다. 무엇보다 흠 잡을 것 없어 보이는 우미린 아파트 입주자들. 내 집 마련의 꿈을 이룬 사람들에게 이곳은 포근한 안식처였다. 하지만 문제는 엉뚱한 곳에서 벌어졌다.

소음의 고통

문제의 발단은 입주한 후부터 끊임없이 재기된 주변 도로 소음이었다. 아파트 단지 주변에 위치한 도로 소음이 법적 기준치를 초과한 것. 특히 자

동차 통행량이 많은 남부대로의 소음은 입주민들의 생활에 큰 피해를 입히는 주범이었다. 이런 문제점을 보완하기 위한 환경영향평가 협의내용에는 도로변 완충 녹지 조성과 방음벽, 남부대로의 저소음 포장에 명시되어 있었다. 하지만 천안시와 한국토지주택공사는 예산을 이유로 해당 공사의 시행을 무기한 연기하였다. 이미 입주가 진행된 상황에서 이에 따른 피해는 고스란히 입주민이 안



03 도로변이지만 방음벽이 없어 입주자들이 소음으로 힘들어 하고 있다.

게 된 것이다.

입주민들은 주민 대표를 선정해 한국토지주택공사와 천안시에 소음문제 해결을 요청했다. 남부대로에 방음터널을 만들어 아파트 단지의 소음을 해결해 달라는 것이 입주민들의 주장이었다. 하지만 한국토지주택공사는 당초 사업계획에 방음벽 설치 계획은 없었고, 추후 예산이 마련되면 완충녹지와 저소음포장을 할 계획이라며 입주민들의 요구를 거부하였고, 천안시 역시 한국토지주택공사의 입장을 핑계로 민원을 적극적으로 해결할 의지를 보이지 않았다. 당장 답답한 것은 입주민들뿐이었다.

권익위에 호소하다

수십 차례 민원을 넣어도 요지부동인 천안시와 한국토지주택공사. 현실적으로 입주민들 입장에서는 딱히 해결할 수 있는 방법도 보이지 않았다. 결국 입주민 중 한 명이 이런 답답한 현실을 국민권익위원회(이하 권익위)에 하소연 하였고 권익위는 이 민원을 접수해 현장 조사에 착수하게 되었다. 3차례에 걸쳐 현장 조사를 실시한 권익위 담당자는 직접 관계기관을 찾아다니며 현실적인 수준에

서 해결 방안을 협의하기 시작했다.

끈질긴 협의 끝에 고충민원에 대한 조정 권한을 가지고 있는 권익위는 다음과 같은 결과를 내 놓았다. 천안시와 토지주택공사는 당초 계획된 남부대로의 차도부분 포장방식을 저소음 포장에서 일반포장으로 변경해 사업비를 절감하는 대신, 올해 9월말까지 우미린 아파트 인근 남부대로변에 방음벽을 설치하도록 권고하는 중재안을 제시한 것이다.

서로 한발씩 양보해야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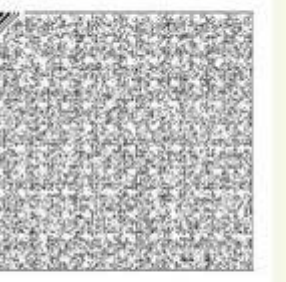
물론 이런 중재안이 나오기까지 과정은 결코 쉽지 않았다. 예산문제로 당장 공사를 시행할 능력이 없는 한국토지주택공사와 적극적 해결 의지가 보이지 않는 천안시, 소음으로 고통을 받고 있는 입주민들 사이에서 원만한 협의를 이끌어 낸다는 것은 생각보다 어려운 일이었다. 특히 고층 아파트의 경우 방음벽만으로 근본적인 소음 해결이 어렵기 때문에 방음터널을 설치해 줄 것을 고수하던 입주민들의 요구를 설득하는 것도 권익위의 몫이었다. 이러한 문제를 권익위 담당자는 수차례에 걸쳐 입주민들을 직접 찾아가 설명하고, 설득하는 과정을 통해 현실적인 답을 찾아내었다.



04 김대식 부위원장이 교통소음 방음벽 설치 요구 민원에 대해 조정회의를 원만히 마친 후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



05 천안 우미린 아파트 앞 남부대로의 모습.



06, 07 권익위의 조정회의 이후 도로 방음벽을 설치 중이다.

이렇듯 서로 만족스러운 타협이 이뤄지기까지는 민원 초기부터 직접 현장에 나와 주민들의 고충을 듣고 관계기관을 찾아다니며 합의를 도출해 낸 박양규 사무관의 역할이 컸다. 양측이 서로 원만하게 합의할 수 있는 방안을 찾기 위해 동분서주했고, 그가 노력한 만큼 대가는 보람으로 다가왔다.

국민의 파수꾼, 권익위

입주자 대표 김완호 씨는 “권익위가 아니었다면 사실 해결하기 어려웠을

박양규 사무관 미니 인터뷰

국민들의 고충을 해결하기 위해 대한민국 구석구석을 찾아다니며 가장 힘든 순간은 어려운 여건에 놓인 사람들의 바람을 해결하지 못할 때입니다. 민원인의 사연이 아무리 안타깝워도 법·제도상 이유로 해결할 수 없는 일도 있기 때문이죠. 그럴 땐 정말 어깨에 힘이 쭉 빠지곤 합니다.

이번 민원을 처리하면서 가장 힘들었던 일은 무엇보다 원만한 합의였습니다. 서로 요구하는 입장이 극명하게 달라 합의점을 찾는 것이 쉽지 않았죠. 하지만 합의에 이룬 후 민원인이 제 손을 잡고 고맙다고 할 때 느끼는 보람이 다시 뭘 수 있는 원동력이 됩니다. 언제나 상식이 통하는 세상이었으면 합니다. 그러면 저 같은 사람이 할 일이 없겠죠? 하하.



“교통 통행량이 많은 남부대로의 소음은 입주민들의 생활에 큰 피해를 입히는 주범이었다. 이미 입주가 진행된 상황에서 이에 대한 대책 마련이 필요했다.”

일이었습니다. 입주민들의 소리에 제대로 귀 기울여 주는 곳은 없고 법적으로도 막막하기만 했던 당시의 고통을 생각하면 그저 꿈만 같은 일이지요”라며 당시를 회상했다. 처음 박 사무관이 아파트 단지를 찾을 때만해도 반신반의 했던 것이 사실이었다. 주민 중 한 명이 그저 지나가는 말로 권익위에 민원을 넣어 보면 어떨겠냐는 말에 ‘정말 연락이 오기는 할까?’라는 마음에 기대를 하지 않았기 때문. 하지만 그토록 묵묵부답이었던 관계기관을 직접 발로 뛰어 다니며 해결하는 모습을 보고 믿음과 감동을 받았다고 한다.

국민 권익을 보호하는 국민권익위원회. 국민들은 언제나 작은 꿈을 위해 권익위의 문을 두드린다. 언제 어디서나 고충을 겪고 있는 국민들에게 희망을 안겨주는 본연의 역할을 잊지 않는다면, 어려움을 겪는 이들에게 권익위는 언제나 슈퍼맨이 아닐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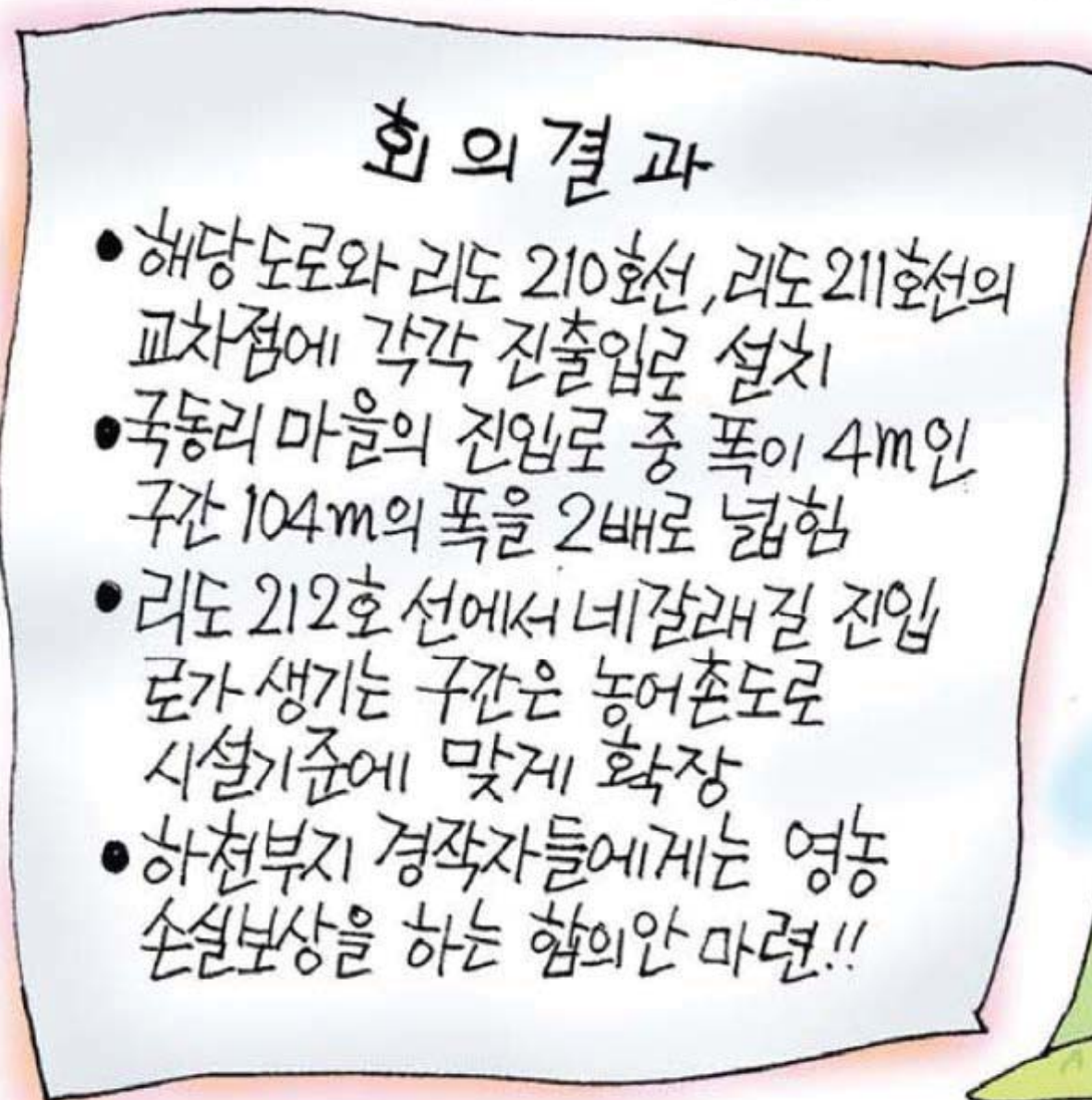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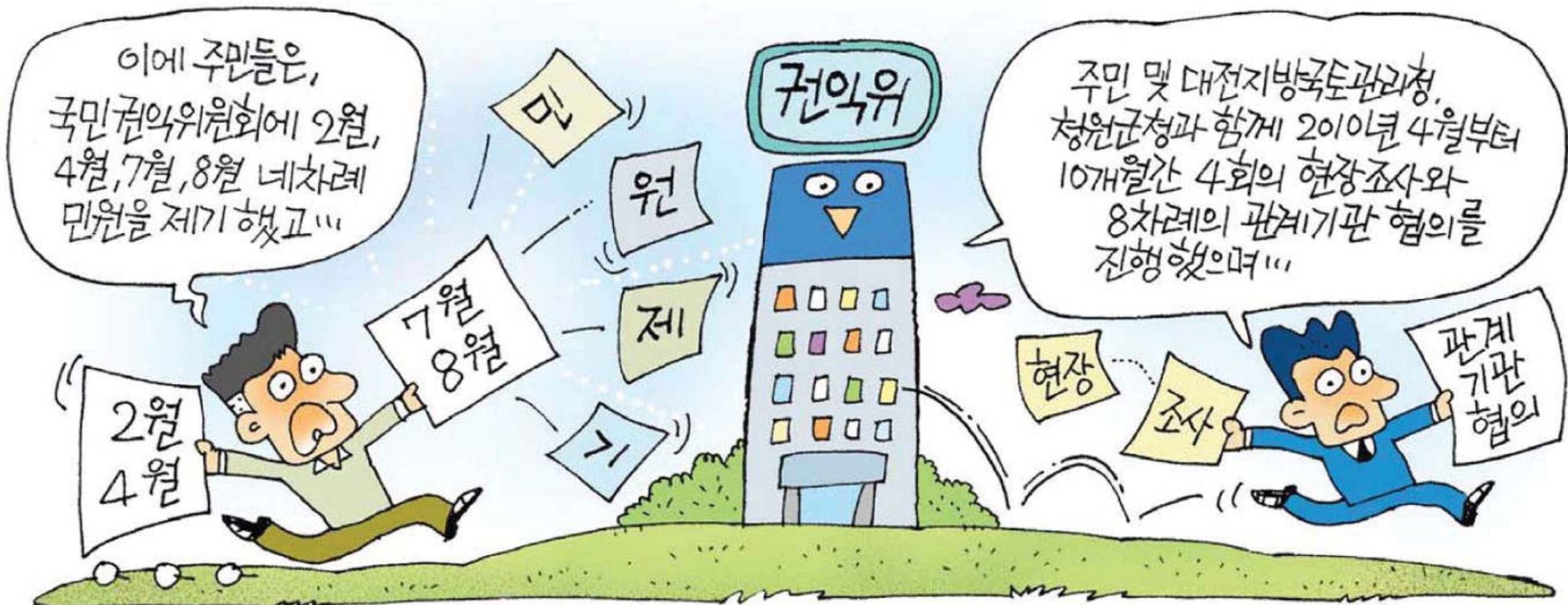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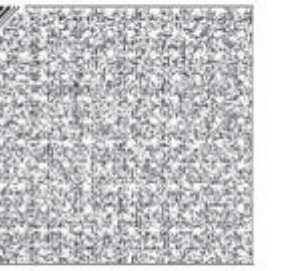
만화로보는 교통처리

12개 마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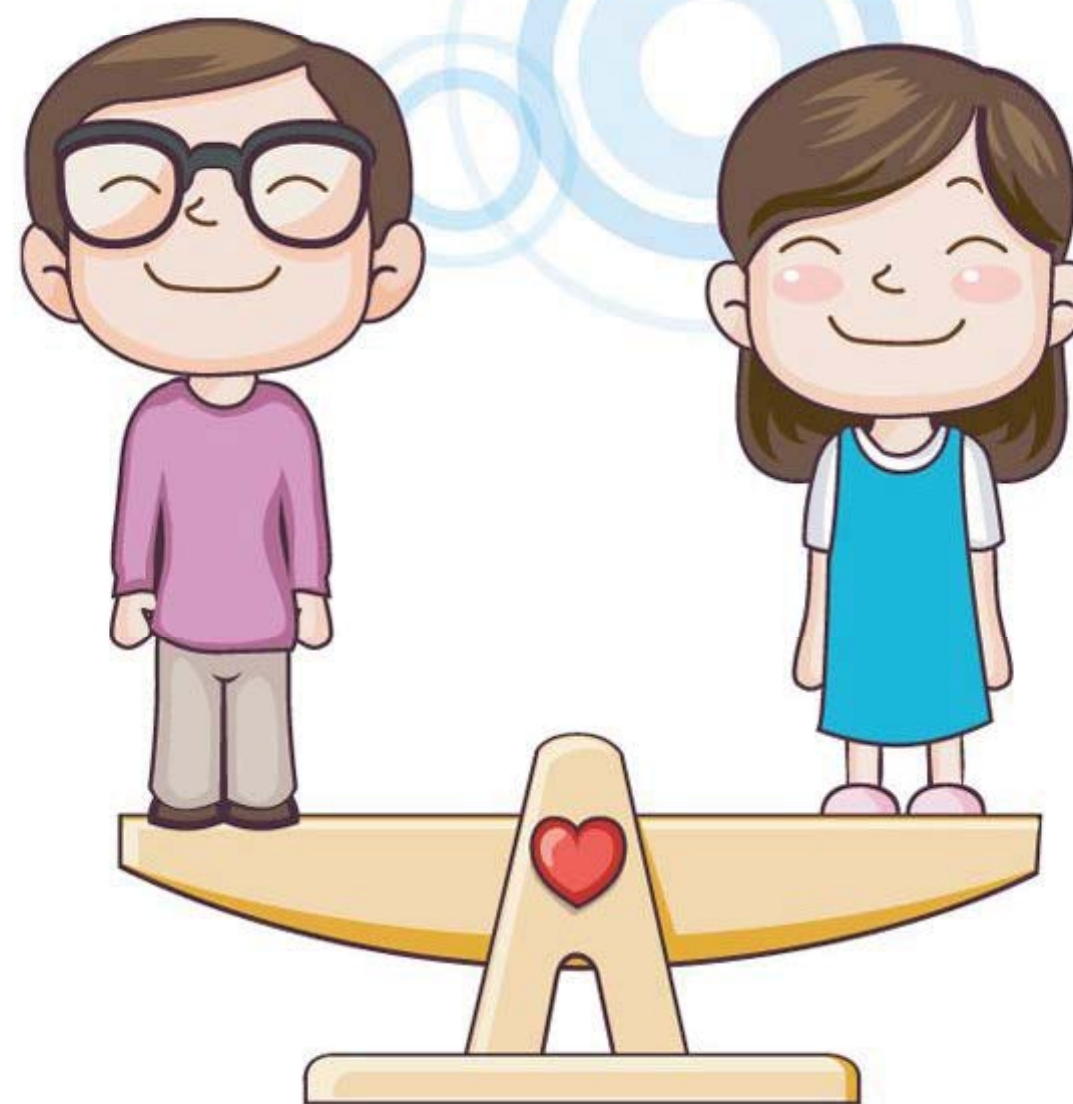
청원 내수읍 북이면 진출입로 설치

*청원군 내수읍 묵방1리·북이면 장재1구등





평등이 행복을 낳는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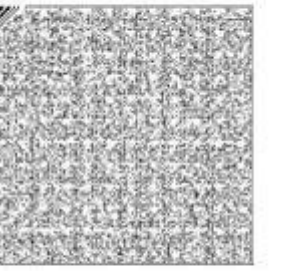


이 세상에서 가장 행복한 국민은 누구인가? 2006년에 발표된 영국의 *신경제재단(New Economics Foundation)에 따르면, 포장도로 하나 없는 남태평양의 바누아투 공화국이 전 세계에서 가장 행복한 나라이다. 특별한 자원 하나 없이 화강암 바위 덩어리로 만들어진 이 나라 국민이 행복한 이유는, 매사에 감사한 마음을 갖는 것이 행복의 근원이라는, 우리가 자주 말하지만, 실천하기 어려운 마음의 훈련을 어느 국민보다 집단적으로 잘 실천하기 때문이 아닌가 생각한다. 우리는 행복의 조건을 말할 때, 흔히 높은 소득수준, 안정된 삶의 환경, 넉넉한 소비 등등이 행복조건이 아니라고 쉽게 말한다. 우리가 추구하는 물질적인 삶이 행복을 가져다주지 않는다는 뜻이다. 맞는 말이다. 그러나 문명화된 사회적 존재인 우리들이 정말로 매일 바다를 볼 수 있어 행복하다는 바누아투 공화국 국민이 될 수 있을까? 어렵다는 생각이 든다. 그렇다면 우리가 행복하기 위해서 갖추어야 할 사회적 조건은 무엇일까?

행복의 조건은 시대에 따라 다르다고 본다. 남성이 사회의 주류를 이루는 가부장 사회에서는 남성의 행복조건이 가장 중요했겠지만, 남녀가 함께 주요 사회구성원이 되는 오늘날의 행복조건은 남녀가 함께 행복할 수 있는 조건에서 찾아야 하지 않을까?

어떤 사회라야 남녀가 건강하고 행복하게 살아갈 수 있을까? 성별분업이 뚜렷하고 남성의 지위가 높으며, 여성의 지위가 낮은 사회일까? 아니면 남녀 지위가 비슷하며, 남녀가 유급노동, 가사 및 양육을 함께하는 사회일까? '불평등은 어떻게 사회를 병들게 하는가? 평등해야 건강하다'라는 책을 쓴 사회역학자 리처드 월킨슨의 말에 의하면 남녀가 평등한 사회일수록 남녀의 평균수명이 높고 건강하게 사는 것으로 나타났다. 불평등한 사회일수록 남성의 주도권이 강하며 여성의 지위는 상대적으로 낮지만, 불평등의 영향을 가장 많이 받는 것은 여성이 아닌 바로 남성의 사망률이었다. 남성 중심 사회일수록 '남성다움'에 대한 사회적 압력이 강해 남성이 받는 스트레스는 가중되고 이것은 남성의 수명을 단축시키는 이유로 작용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불평등으로 인해 남성들 간의 사회적 관계가 여성들의 사회적 관계보다 더 위계적인 것으로 나타났다. 남성이 지배하는 사회에서 남성은 여성과 마찬가지로 커다란 피해를 입고 있다. 반면에 여성의 지위가 높아질수록 여성의 사망률도 감소하며, 여성 지위가 향상되면 여성의 건강 뿐만 아니라 남성의 건강도 향상되는 것으로 나타난다. 여성이 남성과 지위가 비슷한 사회일수록 남녀모두 건강하고 행복하게 사는 사회가 된다면 우리의 국가정책도 여성과 남성이 함께 참여할 수 있는 사회적 조건들을 무수히 창조해야 하지 않을까.

*NEF는 전세계 143개국을 대상으로 기대수명, 삶의 만족도, 환경오염 지표 등을 평가해 국가별 행복지수를 매년 발표하고 있다.



HAPPY ENJOYMENT

행복누리

우리 문화

600년 역사의 숨결 느껴지는 '조선왕릉'

문화지킴이

통영이 운명이고 춤이 운명이었네

법과 권익

예금자보호법, 제대로 알자!

건강한 삶

게으름에서 벗어나 삶 속으로!

카메라에 비친 풍경

오감의 고장 하동에 피어나는 봄

포커스 온

부패한 세상에 경종을 울리는 영화 <부당거래>

또 다른 세상

인터넷이 우리의 뇌 구조를 바꾸고 있다
<생각하지 않는 사람들>

ACRC News

편집 후기



조선왕릉, 유네스코 세계문화유산 등재

2009년 6월 27일, 조선왕릉 40기가 유네스코 세계문화유산에 등재됐다. 600여 년이라는 오랜 세월 동안 이어져 온 조선 왕조의 역사적 가치를 인정받은 것이다. 반면 조선왕릉에 대한 우리의 관심은 부족했었다. 초등학교 소풍 때 김밥을 싸들고 갔던 곳 정도가 왕릉에 대한 기억의 전부인 이들도 있다. 그저 옛 왕조의 낡은 산물, 따분한 문화재 정도로 여겨지기도 했다.

조선왕릉에 대한 인식이 바뀐 데에는 관련 학문의 발전과 더불어 우리의 변화된 생활 양식의 영향이 컸다. 조선왕릉은 유럽의 건축가들로부터 ‘신(神)의 정원’이라는 극찬을 들을 만큼 빼어난 조경을 자랑한다. 2000년대 들어 많은 이들이 가족나들이 장소로 왕릉을 찾게 된 이유다. DSLR의 보급과 함께 사진을 찍기 위해 이곳을 찾는 이들도 많아졌다. 그만큼 아름다운 곳이 조선왕릉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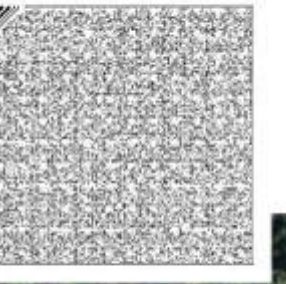
총 42기의 왕릉, 그 안에 담긴 조상의 얼

조선의 왕릉은 모두 42기. 그 중 북한에 있는 태조의 첫 번째 비인 신의왕후 능 ‘제릉’과 정종, 그 비 정안왕후의 능인 ‘후릉’을 제외한 40기가 대한민국에 남아 있다.

600년 역사의 숨결 느껴지는 ‘조선왕릉’



600-year history of the breath



조선왕릉은 능침, 석물, 능비, 건축물, 자연산림 등 여러 요소들로 이루어진 종합박물관이다. 단순히 왕과 왕비의 무덤으로 여길 것이 아니다. 당대 최고 수준의 사상, 역사, 미술, 건축, 조경, 풍수지리 등 다양한 학문의 보고(寶庫)이다.



조선시대에 국왕이나 왕후가 승하하면 곧바로 능호를 정하고, 왕릉으로 삼을 만한 좋은 터를 마련한 뒤 왕릉의 조성 공사에 돌입해 장례를 치르기 전에 완공했다. 그러나 왕릉 모두가 이런 과정으로 만들어지진 않았다. 반정을 통해 국왕이 된 인종은 즉위한 후에 자신을 낳은 생부 정원대원군을 원종으로 추송하고 생부의 무덤을 '묘'에서 '왕릉'으로 격상시켰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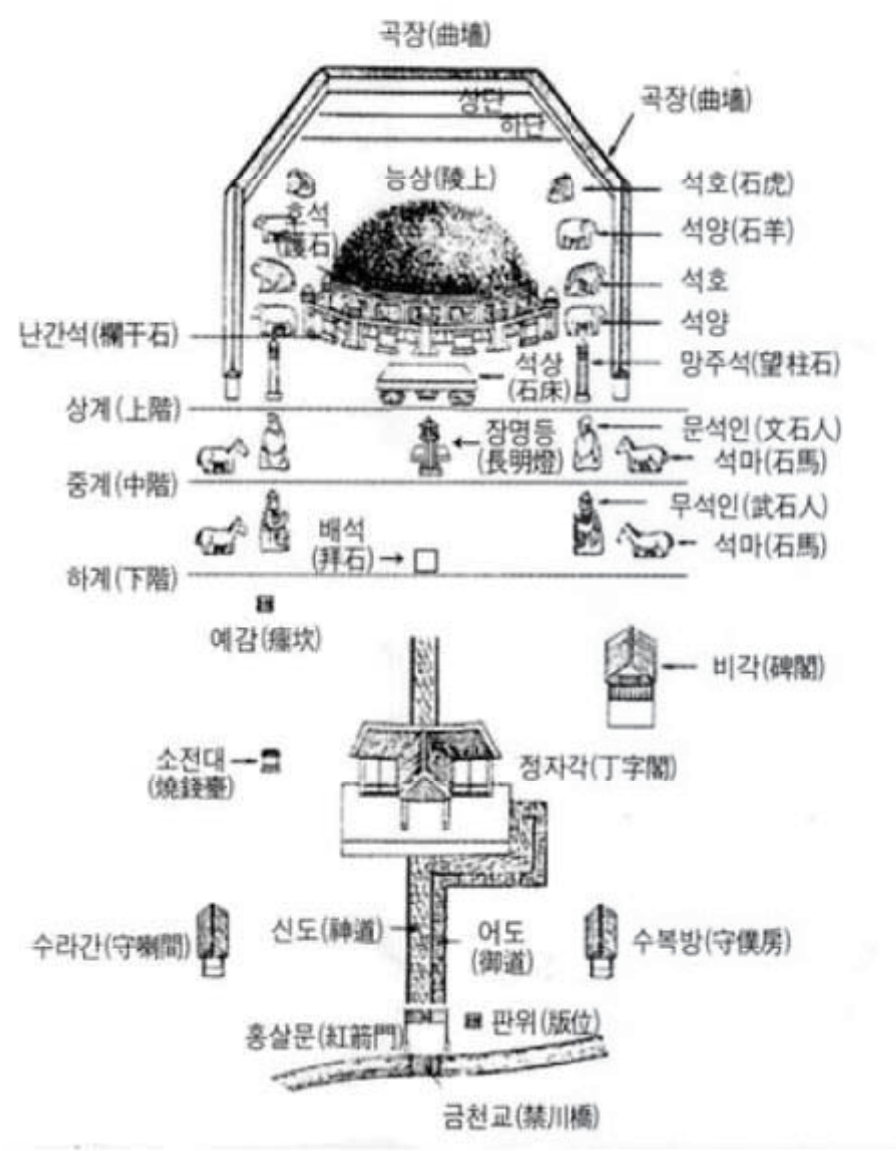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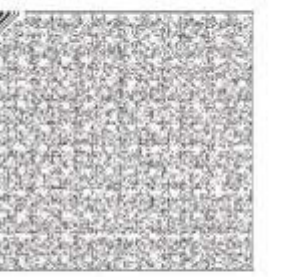
조선 왕릉은 일반적으로 능침, 정자각, 수라간, 비각, 참도, 수복방, 홍살문으로 이루어진 구조를 지녔는데 홍살문은 제일 앞쪽의 진입공간을 일컫는다. 홍살문을 지나면 참도로 통하고 이를 따라가면 제례의 중심공간을 형성하는 정자각이 위치한다. 정자각 좌우 측면에는 계단이 있는데 이는 해가 동쪽에서 서쪽으로 지는 자연의 섭리를 적용한 것이라고 한다. 오른쪽에는 계단이 두 개, 왼쪽에는 계단이 한 개 있는데, 올라갈 때는 참배자와 영혼이 함께 갔다가 내려올 때는 참배자만 내려오고 영혼은 정자각 문을 통해 봉분으로 가는 것이라고, 우리 조상들은 여겼다.

왕의 무덤에서 백성의 품으로 온 왕릉

왕릉은 유교를 통치이념으로 삼은 조선의 정통성을 드러내는 건축물이다. 또한 위민사상이라는 유교 가치관에 의해 그 양식이 화려하지 않고 간소하고 소박하다. 건축적으로 본다면 과연 왕의 시설물인가 의구심이 들 정도로 간단한 편이다. 하지만 그럼에도 그 전체 모습은 극도로 장엄하고 엄숙하다. 이는 최소화된 건축요소를 주변 환경과 결합시켜, 큰 전체로서 공간을 구성했기 때문이다.

조경적인 측면에서도 조선왕릉은 빼어남을 자랑한다. 왕릉은 아름다운 조각공원이며 드넓은 녹지 공간이다. 왕릉은 단순히 죽은 자를 모시는 공간이 아니라 죽은 자와 산





자가 만나는 자연의 휴식 공간이다. 왕릉 조경 구성은 이런 우리 조상들의 철학을 반영하고 있다. 풍수지리에 근거하여 능 주변에 숲을, 그 주변에 다시 비보숲을 만들고, 연못과 돌다리를 설치해 조화로운 공간미를 보여준다.

왕릉은 그 안에 다른 보물들을 숨기고 있다. 바로 다양한 석물이 그것이다. 석물은 세계문화유산 등재 이후 미술계에서 크게 관심을 갖는 부분이기도 하다. 봉분을 둘러싼 석물들은 제작 연대가 비교적 명확해 학술적 가치가 높고, 우리 조상들의 해학이 담겨있는 미술품으로서 매력 또한 크다. 시대별 조각 양식 변화를 통해 당시의 생활상, 우리 민족을 잇는 큰 문화적 줄기도 엿볼 수 있다. '왕릉'은 이런 이유로 우리의 '학습'의 공간이 되기도 한다.

왕릉, 새로운 휴식 공간으로 거듭나다

40기의 왕릉 가운데 동구릉은 특히 많은 이들이 찾는 곳이다. 서울에서 가까운 경기도 구리시에 있어 가벼운 마음으로 찾아가기에 좋고, 한 곳에 9개에 달하는 왕릉이 모여 있다는 장점도 있다. 왕릉 중 최대 규모인 동구릉은 1400년경 조성된 태조의 건원릉부터 1800년대 조성된 경릉까지 '9릉 17위'의 왕과 왕후릉이 안장되어 있다. 따라서 동구릉은 왕릉의 변천사를 가장 잘 살펴 볼 수 있는 곳이기도 하다.

이제 왕릉은 더 이상 고리타분한 시대의 유물이 아니다. 우리가 그곳을 찾고 아끼는 만큼 더 아름답게 빛나는 공간이다. 왕릉은 조선 왕조의 영광을 드러내는 장소일 뿐만 아니라 과거와 현재가 소통하는 '어울림'의 장(場)이다.

이번 주말 복잡하고 숨 막히는 도시를 떠나 휴식이 필요한 이라면, 우리 문화를 아이들에게 가르칠 수 있고 멋진 풍경을 연인과 감상할 수 있는 왕릉으로 떠나보자.

TIP

*왕릉을 찾아서

동구릉(東九陵)

9개의 왕릉이 있어 더욱 알찬 동구릉 나들이. 경기도 구리시에 위치하고 있어 교외 나들이 장소로도 안성맞춤이다. (문의 031-563-2909)

선릉(宣陵)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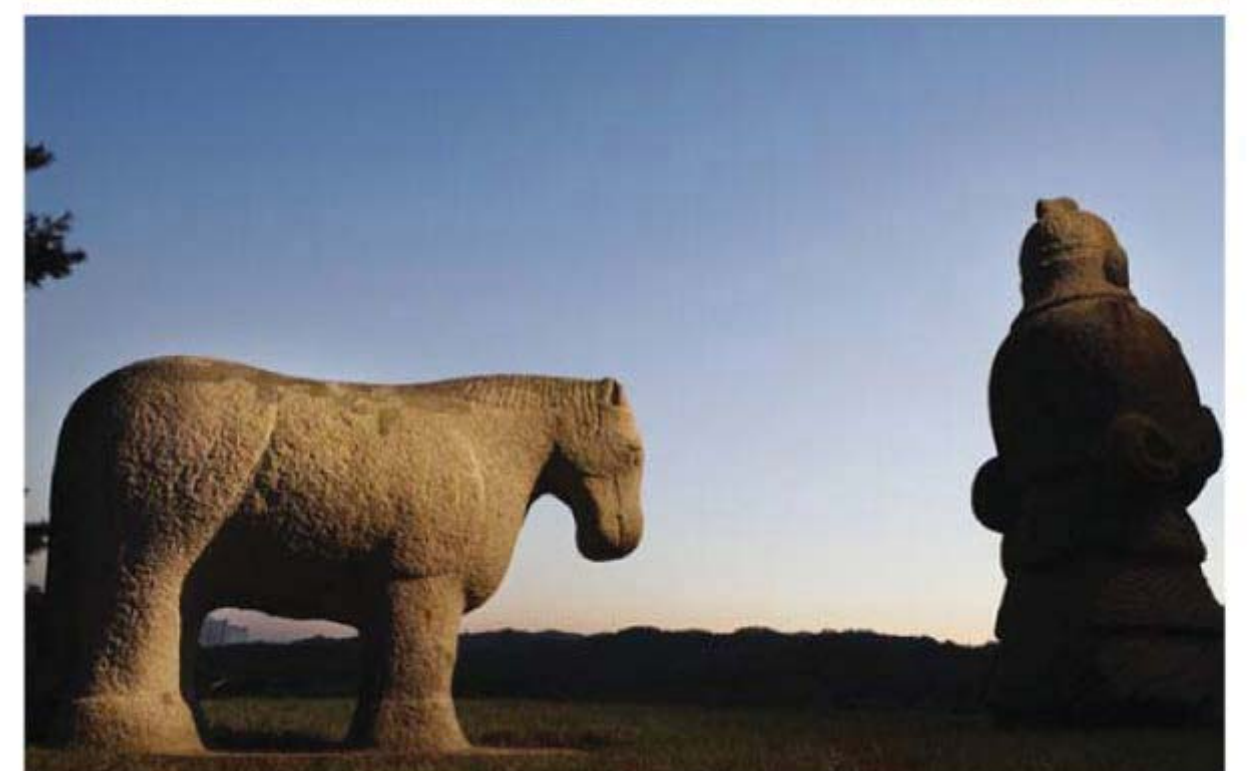
복잡한 도심 속에서 울창한 숲의 휴식을 느끼고 싶다면? 주저할 것 없이 지하철을 타고 선릉으로 출발하자. 주변 직장인들이라면 점심시간에도 이용할 수 있다! (문의 02-568-1291)

서오릉(西五陵)

고양시에 위치한 서오릉은 주변 식당가가 맛집으로 유명하다. 방송에도 몇 차례 소개된 집들이 있을 정도. 맛있는 점심 한끼와 함께 나들이를 하고 싶다면 서오릉으로 향하자. (문의 02-359-0090)

장릉(莊陵)

서울에서 벗어나 여행하는 기분을 느끼고 싶다면 '장릉'이 제격이다. 비운의 왕 단종의 무덤인 장릉은 강원도 영월에 위치해 있다. 쓸쓸한 역사를 지니고 있지만, 장릉 주변의 풍광만큼은 일품이다. (문의 문화재청 042-481-4650)



통영이 운명이고 춤이 운명이었네

중요무형문화재 제21호 한정자

매년 4월 28일, 통영에서는 충무공 이순신 장군의 탄신을 기념하는 탄신기념제가 거행된다. 이 행사의 절정은 조선시대 삼도수군통제영에 속한 여성들이 군사들의 사기를 북돋아주기 위해 군무로 추었던 승전무(勝戰舞) 공연. 과거 선조들의 숨결을 예술의 혼으로서 간직한 승전무는, '동양의 나폴리'라 불리는 통영의 갯가지 불거리 중에서도 백미라 할 수 있다. 따라서 중요무형문화재 제21호 승전무 보유자인 한정자 선생은 통영의 옛 시간과 미지의 시간을 스스로의 삶으로 오롯이 이어온 예인(藝人)임에 틀림없다.

한정자 승전무예능보유자

1966.05 승전무 발굴, 전수활동 시작
1968 중요무형문화재 제21호 지정
1971 전국 민속경연대회 공보부 장관상 수상
1978 민속예술경연대회 우수상 수상
1984 제25회 전국민속예술경연대회 문공부장관상 수상
1987 검무도 중요무형문화재 제21호로 합설하여 승전무로 완성, 재지정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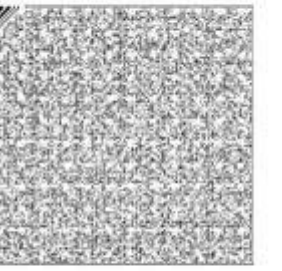
interview



승전무를 잇는 다리가 되어

한정자 명인을 만난 지난 3월 14일 월요일, 한양대 사회교육원 건물의 무용실에는 승전무를 배우러 모여든 학생들의 열기로 뜨거웠다. “하나, 위로, 두울, 위로, 서이, 위로, 뒤짚~고.” “곧잘 따라들은 하는데 진심을 다해서 추는 게 아니라, ‘쫄’로 하고 있는기라. 무슨 말인가 하몬, 기분을 까먹고 멋을 부려서 추고 있다 말 아이가. 그럼 모양이 예쁘게 나올라 카다가도 쑥 들어가뿐데이.”

일흔을 넘긴 이라고는 믿기지 않을 만큼 찌렁 찌렁한 목소리, 하늘색 한복치마를 곱게 차려입고 모든 동작을 직접 시범을 보이며 구령을 맞추는 열정적인 선생님은 바로 한정자(승전무보존회 회장, 중요무형문화재 제21호) 명인이다. 오늘 수업을 위해 자택이 있는 통영에서



버스를 타고 올라온 그는 몸은 고되지만 “이제 밥 안 먹어도 배부르다”고 말한다. 이유를 들어보면,

“한 40년 넘게 무용학원을 했다 안 카요 초·중·고·대학생까지 다 가르쳐봤는데, 배울 때 그뿐인가라 결국 맥이 탁 탁 끊기데. 이게 뭐 밥벌이 되는 것도 아니고 승전무 한 번 공연 올릴라 카문 서른 명은 있어야 되는데 항상 구걸하다시피 학생을 구하러 다녔지. 근데 서울은 일단 인구가 많고 한 8년 왔다갔다하모 가르쳐본께, 인자 전수자도 한 50명 되고 이수자도 열 명인가라. 배울라고 하면 내가 거로 가는 기지.”

승전무는 경남 통영에서 예부터 흥한 춤으로 궁중에서는 ‘무고(북춤)’라 하여 기녀와, 춤추는 사내아이들에 의해 전승되었다. 임진왜란

당시에는 충무공이 장수와 병졸들의 노고를 위로하고 사기를 북돋우기 위해 추게 하였으며, 전쟁에 이긴 후에는 축하의 의미로 추게 하였다는 기록이 남아있다. 활옷을 입고 양손에 한삼을 낀 4명의 무희들이 중앙에 북을 놓고 동서남북으로 나뉘어 북을 울리며 창(唱)을 하고 춤을 추는데, 흠어졌다 모여드는 형태는 삼진삼퇴를 뜻한다. 우아한 춤사위와 가락, 북과 검과 창(唱) 등이 어우러진 일품의 궁중무다. 그런데 이토록 아름다운 승전무가 그대로 종적을 감출 뻔한 위기도 있었다.

“일제시대, 전쟁통이었고 한참 동안 중단 됐지. 스물 넘어 전수자를 찾아다녔는데, 할무이들이 자기가 기녀였다는 것을 들추기 싫어서 다 거절하데. 열세 살 때부터 마 기방에서 종아리 맞아가며 춤 배운 사람들잉께. 그중 어렵

게 정순남 선생님을 모셔다놓고 이 춤을 배우게 됐지. 막 결혼하고 그때가 내 나이 스물셋이었제.”

그거 아니면 죽겠는데 우짜노

진주의 진주검무가 이미 중요무형문화재 제12호로 지정된 상태였기에 1968년에 승전무는 오직 북춤으로서 중요무형문화재 제21호로 지정되었다. 허나 북춤과 칼춤이 늘 함께 공연되었다는 여럿 증언이 뒤따르면서 1987년, 검무 역시 중요무형문화재 제21호로 합설하여 재지정되었다. 이례적으로 북춤-한정자, 칼춤-엄옥자 명인이 동시에 문화재로 지정되며 승전무를 어렵사리 복원시킬 수 있었다.

통영이 운명이고 춤이 운명인 그가 승전무를 지킬 수 있었던 것은 다행스럽고도 자연스러운

일이었는지도 모른다. 하지만 승전무를 만나기 이전에도 그는 이미 통영에서 이름난 최고의 춤꾼이었다. 전공 수업을 받은 것도 아니고 특별한 꿈이나 목적을 가졌었던 것도 아닌데 그가 있는 곳에서는 운명처럼 갖가지 춤들이 돌아나 자꾸만 새로운 길을 만들어 나갔다.

“유치원 때부터 앞에 나가가 학예발표 하는 걸 좋아라 했제. 그때 강습소나 학원이 어디 있었노. 전공자도 아닌 학교선생님이 가르쳐주는 게 유일한 배움의 기회였고, 어릴 때부터 친구들끼리 안무도 짜고 공연 올라가는 재미가 쏠쏠했지. 고등학교 때 처음으로 티브이가 나왔는데 리틀엔젤스 공연한다 그라문 우르르 몰려가서 보고 흥내도 내고, 어릴 때부터 취미로 예까지 왔다 카면, 자다가도 벌떡 일어나가 손춤을 추든 발춤을 추든 몸을 움직여야 되능기라. 인자 한 50년 했으니까 지쳐서 그만 할라카는데, 그 맘이 그거 아니면 죽겠는데 우짜노.”

중학교 때 그의 국어선생님이었던 원로 희극작가 주평 선생은 오디션으로 한 스무 명쯤의 아이들을 뽑아놓고 그가 대학 시절 재미를 붙였었던 연극이며 무용 등을 가르쳐주었다. 그 때 배웠던 무용극이 〈노들강변〉, 〈창부타령〉, 〈도라지〉 등이었다. 곧잘 따라하던 소녀들은 재경학우회, 위문 잔치 등 학교내외행사에 불러가기 시작했고 친구들끼리 모여 유성기를 틀어놓고 춤추는 재미를 알아갔다. 고등학교 시절에는 진주의 개천 예술제에서 상도 탔고 고교를 마치고 보니 어느새 자연스레 무용은 천직이 되어버렸다.

누가 뭐래도 춤에 관해서는 내가 1인자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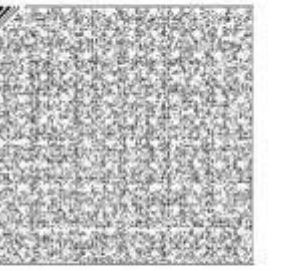
고등학교 졸업 후에는 무작정 서울로 올랐다. 서울에서 한 1, 2년만 춤을 더 배워 가면 고향에 내려가서 그를 필요로 하는 이들에게 춤을

가르칠 수 있을 거라는 전망을 세운 터였다. 돈암동의 김진걸 무용연구소 등 간판에 ‘무용’만 들어가 있으면 찾아가 기웃기웃 댔다.

“통영에 대학 갈 애들이 있는데 내 아니면 안 되겠단 생각을 했능기라. 고향에 내려와서는 닭장 같은 데 빌려서 자리만 깔고는 바로 춤을 가르쳤제. 배울라카는 사람만 있으면 줄곧 가르쳐주는 게 그때부터 시작된 기라. 학교에서 마스게임 있다 카면 가가 가르쳐주고, 상업학교에서 급여를 받는 것도 아닌데 무료 봉사 무용 수업을 하고, 초등학교 가서는 아그들이 전수해보겠다고 가르치고, 키 158cm만 되면 무용 갈쳐주겠다고 쫓아댕겼제.(웃음)”

그의 큰딸도 승전무 이수자, 작은딸 역시 승전무 이수자다. 며느리와 손녀도 춤을 춘다. 제자들이 결혼 소식을 알리면 신랑을 데려오라 하여 “춤추는 걸 반대하면 나는 제자 결혼 못 시킨다”고 으름장을 놓는다. 이쯤 되면 “우리





엄마 못 말린다”, “선생님 너무 한다”는 불멘 소리가 나올 법도 한데 그의 대답은 아주 시원스럽다.

“춤만 추면 그저 좋고, 일흔 세월 동안 춤 말고 다른 것을 뭘 했는가 카몬 암 것도 한 게 없제. 춤춘 거 외에는. 딸들이 춤추는 것도 보고 자란 게 그것밖에 없어서 그라제. 큰딸은 뱃속에 있을 때부터 춤추고 나왔는데, 뭘! 주 위에서는 나 더러 ‘성공한 사람 중에 하나다’라 카데. 글썄, ‘누가 뭐래도 춤에 관해서는 내가 1인자지’, 생각하니까 그게 성공이라면 성공이겠네.”

그는 지금껏 한 번도, 승전무 공연할 때 빠져 본 예가 없다. 단 한 차례 빼고는. 부군이 돌아가셨을 때 49제 안에 공연이 있었더랬다. 신랑이 죽었는데 내가 어째 장구치구 북 치겠노, 하며 그는 제자를 대신 무대 위에 올려 보냈다. 그 외 아파서 못 한다든지 다른 사정은 있을 수 없다. 시어머니가 돌아가셨을 때도 공연을 다 마치고 상가에 간 사람이 그다. 취미라 생각하고 업(業)이라 생각하고 그거 아니면 죽는다고 생각했으니까. ‘누가 뭐래도 춤에 관해서는 내가 1인자다’ 생각하니까.

북 받은 땅 통영, 고향에 내 혼 묻고파

하지만 앞서 배부르다 말했던 것과는 달리 여전히 그는 산더미 같은 걱정을 이고 산다. 다른 민속춤과 달리 승전무는 대규모의 인원을 필요로 하고 여러 가지 숙련된 기술을 연마해야 하는 춤이다. 북춤 16명, 칼춤 8명, 악사 6명, 총 서른 명이 함께 무대 위에 서려면 그 인원수 채우기만도 만만찮다. ‘이번엔 누가 올라가야 하나...’ 그는 무용을 연구해야 할 시간



에 항상 그것 때문에 걱정한다고 토로한다. 조교가 두 명 있긴 하지만 그의 걱정은 그치지 않는다.

“언제 죽을지 몰라도, 내가 죽고 나면 누군가는 하겠지마는, 대게 삼십 명의 인원을 끌고 머리끝부터 발끝까지 준비할 것도 너무 많제. 무대에 세우는 것까지... 그걸 다 내 맘같이 잘 챙겨줄랑가 모르겠네.(웃음)”

또 있다. ‘악(樂)’에 관련된 것이다. 아무리 무용이 근사해도 그를 뒷받침하는 악이 부실하다면 멋진 공연이 되는 것은 불가능할 터. 같은 삼현육각(향피리 2명과 대금·해금·장구·북 각 1명의 6인조를 원칙으로 하는 편성. 지역에 따라 음악적 특징, 악곡구성에 다소 차이를 보인다.)이라도 승전무 고유의 뉘앙스와 독특한 엃박의 맛을 살리려면 아직도 갈 길이 멀기만 하다. 그래서 고향인 통영에서 실력을 갖춘 악사가 나오는 것이 가장 바람직할 거라는 설명이 덧붙는다.

또한 느리고 우아한 승전무의 동작들은 보는 이들에겐 쉽게 보이지만 손사위도 각기 다르고 엃박으로 들어가는 동작이 많기에 실제 취보면 만만찮은 춤이라고. 아무리 선생이 가르친다 해도 배우려는 사람이 없으면 안 되지 않겠느냐고 한정자 명인의 걱정은 이어지고 또 이어진다. 통영이 운명이고 춤이 운명인 그가 승전무를 지켜왔듯이 통영이 운명이고 춤이 운명인 또 다른 누군가에게 희망을 걸어야 하지 않겠느냐고 하자 그제야 함박웃음을 짓는다.

“통영 사람들은 지금까지도 이곳이 참 북 받은 땅이라 한다 카데. 겨울에도 눈 한 번 안 오고 따뜻하고, 태풍 와도 통영은 비껴간다 아이가. 그 많은 예술가들이 났고, 죽어서도 따뜻한 통영에 내 혼을 묻고 춤추고 싶어하지. 왜 그런지 내는 아직도 모르고 춤이 싫증이 안 난다카이. 죽어서도 꼭 그럴 것 같제.(웃음)”

예금자보호법, 제대로 알자!



최근 삼화상호저축은행, 부산상호저축은행 등이 줄줄이 영업정지를 당하면서 대규모 예금인출사태가 발생했다. 금융기관에 어떤 형태로든 돈을 맡긴 사람들은 '과연 내 돈은 안전한가'라는 생각을 많이 하게 되었다. 이와 관련하여 예금자보호제도가 새삼 주목 받고 있다.

예금자보호의 의미와 그 취지는 무엇인가?

금융기관이 영업정지나 파산 등으로 고객의 예금을 지급하지 못하게 될 경우 해당 예금자는 물론 전체 금융제도의 안정성도 큰 타격을 입게 된다. 따라서 이러한 사태를 방지하기 위하여 우리나라에서는 예금자보호법을 제정하여 고객들의 예금을 보호하는 제도를 갖추어 놓고 있는데, 이를 '예금보험제도'라고 한다. 즉 보험의 원리를 이용하여 예금자보호법에 의해 설립된 예금보험공사가 평소 금융기관으로부터 보험료(예금보험료)를 받아 기금(예금보험기금)을 적립한 후, 금융기관이 예금 등 채권의 지급정지 또는 영업인가·허가의 취소, 해산결의 또는 파산선고(이를 예금자보호법상 "보험사고"라고 칭함)가 발생하여 해당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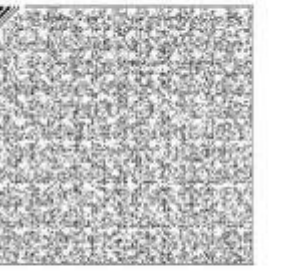
예금 등을 지급할 수 없게 되면 금융기관을 대신하여 해당 예금자에게 예금(예금보험금)을 지급하게 되는 것이다.

예금자보호의 분명한 한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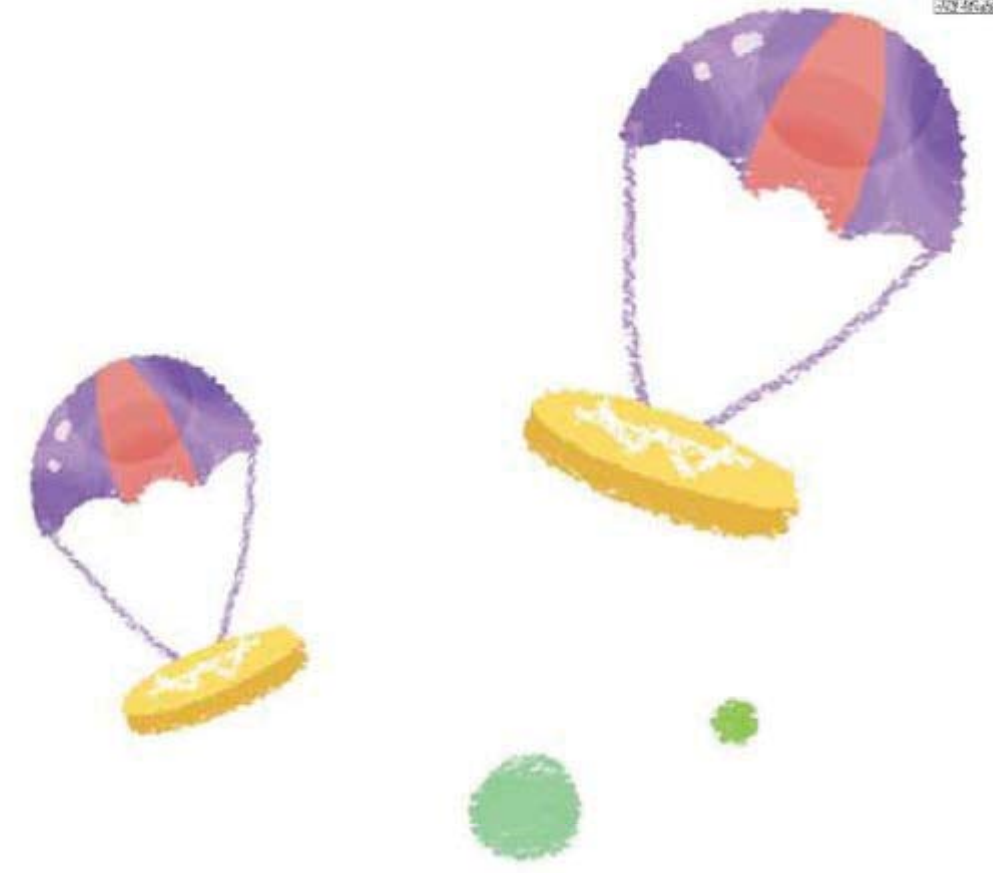
예금보험공사는 은행, 보험회사(생명보험회사, 손해보험회사), 투자매매업자·투자중개업자, 종합금융회사, 상호저축은행, 농·수협 중앙회 및 외국은행 지점에 대한 보험회사 역할을 한다. 다만 위 금융기관의 모든 금융상품이 보호대상이 아니라 예금보험 가입 금융기관이 취급하는 예금 등만을 보호한다. 가령 운용 실적에 의하여 배당되는 투자신탁 상품의 경우 원금 손실을 예정하고 있으므로 보호대상이 아니며 이번에 문제가 되고 있는 상호저축은행의 후순위채권 또한 예금자보호대상이 아니다.

그리고 예금자보호에 따른 보호한도는 원금과 소정의 이자를 합하여 한 금융기관 당 최대 5천만원이다. 이는 일단 소액 예금자 등을 보호하기는 하나 부실 금융기관을 선택한 예금자의 자기 책임도 고려해





“금융상품 가입 시 예금보호 대상여부를 꼭 확인하여야 할 것이며 예금보호 제도가 적용되지 않는 금융상품은 해당상품 자체의 위험성은 물론이거니와 해당 금융기관 자체가 우량한지 여부를 면밀히 따져 가입할 필요가 있다.”



5,000만원까지 보호하는 것이다.

위에서 원금과 소정의 이자를 합하여 1인 및 1금융기관 당 5천만 원이 최대 보호범위라고 언급하였는데 이 때 ‘소정의 이자’란 애초 예금 등을 가입할 때 약정하였던 이자와는 다른 의미다. 즉 보험사고가 발생하여 예금보험공사에 의해 지급되는 이자는 ‘약정이자’와 ‘예금보험공사 결정 이자’(예금보험공사가 시중은행 1년 만기 정기예금의 평균금리를 감안하여 정한 이자) 중 적은 이율을 기준으로 지급된다. 예를 들어 어떤 사람이 ○○은행에 원금 4,000만원, 연 6% 약정 이자로 상당기간 예금하여 이자가 1,000만원에 달할 경우 애초 약정에 따른 원리금 총액이 5,000만원이라고 하더라도 보험금에 의하여 지급되는 금액은 6% 이율로 계산된 이자가 아닌 그보다 낮은 예금보험공사 결정이자로 지급되기에 총 보험금 지급액은 5,000만원에 미치지 못한다. 또한 한 금융기관 당 최대 5,000만원이므로 지점을 달리하여 한 금융기관에 여러 예금을 한다고 하더라도 각각 5,000만원까지 보호받는 것이 아니다.

또한 위와 같이 예금자 등의 보험금청구권은 지급 개시일부터 5년간 행사하지 아니하면 시효로 인하여 더 이상 청구할 수 없다. 단 예금보험공사가 보험금청구권의 행사를 촉구하기 위하여 예금자들에게 행하는 안내·통지 등은 시효중단의 효력이 없는 것이니 참고하자.

금융상품 가입 시 면밀한 검토가 가장 우선되어야

예금자보호제도에 의하여 지급되는 보험금은 보험사고 발생 즉시 바

로 지급되는 것이 아니다. 최종 지급까지는 상당한 기한이 소요될 수 있다. 또한 위에서 살펴본 바와 같이 아무리 예금자보호제도에 의하여 일정 부분 보호된다고 하더라도 예금자보호법상 보험사고가 발생할 경우 상당 부분 금전적 손실과 수고를 수반할 수밖에 없다. 따라서 금융상품 가입 시 예금보호 대상여부를 꼭 확인하여야 할 것이며 예금보호제도가 적용되지 않는 금융상품은 해당상품 자체의 위험성은 물론이거니와 해당 금융기관 자체가 우량한지 여부를 면밀히 따져 가입할 필요가 있다.

가령 각 금융기관의 주요경영지표인 BIS 기준 자기자본비율, 부실여신비율(은행이나 종합금융회사, 특히 저축은행의 경우 PF 채권비율), 영업용순자본비율(증권회사), 위험대비 자기자본비율(자산운용회사), 지급여력비율(보험회사) 등을 살펴야 한다. 뿐만 아니라 경영공시내용, 신용등급, 최근의 주가 등을 면밀히 살펴 살펴본 뒤 가입여부를 결정하는 지혜가 필요하다.

- 1) 예금보험공사 홈페이지 www.kdic.or.kr 중 예금자보호제도 개요 중 인용
- 2) 농·수협 지역조합, 신용협동조합, 새마을금고는 예금보험공사의 보호대상 금융회사는 아니나 관련 법률에 따른 자체 기금에 의하여 보호됩니다.
- 3) 예금자보호법 제32조 및 동법시행령 제 18조 참조
- 4) 예금보호 대상여부인지는 예금보험공사의 홈페이지(http://www.kdic.or.kr/protect/protect_product_list.jsp)를 통해서도 확인할 수 있습니다.



게으름에서 벗어나 삶 속으로!

게으름의 사전적 정의를 살펴보자. “행동이 느리고 움직이거나 일하기를 싫어하는 태도나 버릇”이라고 되어있다. ‘태도’나 ‘버릇’에 방점을 찍는다면 게으름은 결코 한 개인의 천성일 수 없다. ‘난 게을러’라는 말로 핑계를 대서는 안 된다는 이야기다. 버릇이고 태도인 것은 얼마든지 고칠 수 있다. 그런데 언제 고치냐고? 바로 게으르다고 생각한 그 순간부터다.

우리는 왜, 게을러지는가?

강의나 프로그램을 시작하기 전에 편안한 분위기를 만들기 위해 묻는 질문들이 있다. 그 중에 자신에게서 버리고 싶은 한 가지씩을 물어볼 때가 있다. 물론 각양각색의 답변이 나오지만 눈에 보이는 것 중에서는 ‘살’이라는 답변이 가장 많이 나온다. 그리고 눈에 보이지 않는 것 중에서는 ‘게으름’이라는 답변이 자주 나온다. 그만큼 게으름은 우리 삶에 가까이 있으면서도 쉽게 떨칠 수 없는 ‘정신적 뱃살’ 같은 존재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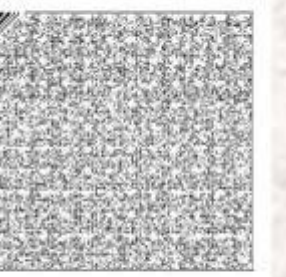
그렇다면 우리는 왜 게으름에 빠지는 것일까? 게으름은 쉽게 말해 ‘삶의 에너지가 저하되거나 흠어진 상태’를 말한다. 방이 어질러져 있는 것처럼 우리의 삶이 어질러져 있는 상태가 된 것이다. 중요한 것은 에너지가 없어진 것이 아니라는 점이다. 삶의 에너지가 부정적 에너지로 바뀌었거나 초점이 없이 흩어져 있다는 것을 말한다. 그러므로 긍정적 에너지를 만들어내고



초점을 정해 에너지를 모으는 것이 관건이다. 사실 자연의 엔트로피 법칙처럼 삶이라는 것도 가만히 내버려두면 무질서해지기 쉽다. 그렇기에 게으름은 어떤 사람들에게만 있는 특정한 병적상태가 아니다. 우리는 누구나 게으른 상태에 빠질 수 있다. 하루 중에도 생체에너지가 바뀌는 바이ורי듬이 있는 것처럼 우리의 인생도 에너지의 높낮이가 다를 수밖에 없는 것이다. 문제는 내리막에서 다시 오르막으로 올라가면 좋은데 많은 사람들이 게으름을 인정하지 않거나 오히려 게으름을 게으름의 핑계로 방치하면 계속 내리막에 머물러 있기 쉽다는 점이다. 결국 나중에는 할 수 있는 것조차 못하게 되는 ‘병적 게으름’ 상태에 도달하게 되는 것이다.

게으름을 느낀다면 그 이유부터 살피자

그러므로 게을러졌다고 느낄 때 가장 먼저 할 일은 게으름이 찾아온 이유를 살피는 것이다. 게으르다고 해서 ‘나는 정말 게을러!’ ‘나는 왜 이렇게 게으를까?’라는 생각에 빠져있다 보면 게으름이 하나의 상태가 아니라 자신의 특성으로 굳어지기 쉽다. 자꾸 천성이나 기질과 같은 어쩔 수 없는 원인으로 그 이유를 돌리게 되기 때문이다. 그러므로 게을러지면 ‘내가 게으른 상태에 있구나!’를 알아차리고 ‘내가 왜 게을러졌을까?’를 묻는 것이 가장 중요하다. 즉, 게으름을 내 삶의 주인이나 나의 일부로 대하는



“ 많은 사람들이 게으름을 인정하지 않거나 오히려 게으름을 게으름의 핑계로 방치하면 계속 내리막에 머물러 있기 쉽다는 점이다. 결국 나중에는 할 수 있는 것조차 못하게 되는 ‘병적 게으름’ 상태에 도달하게 되는 것이다. ”

것이 아니라 손님으로 맞이하는 것이다. 먼저 게으름이라는 손님에게 왜 왔는지를 물어보자. “왜 오셨어요?” 물론 한 번 묻는다고 답을 바로주지는 않는다. 하지만 반복해서 물어보면 게으름은 그 답을 말해준다. 흔한 답변은 다음과 같다. 첫째, 당신은 지금 잘할 수 없는 일을 잘 하려고 애를 쓰고 있거나 둘째, 삶의 방향이나 초점이 없거나 셋째, 과거의 상처나 실패에 얽매어 있기 때문이거나 넷째, 휴식과 이완 없이 일에만 매달려 배터리가 나갔거나 다섯째, 기술적 향상과 개선을 고민하지 않고 같은 방식으로만 노력하기 때문일 거라고 대답할 것이다. 그 원인에 따라 해결해야겠지만, 우선 게으름에서 벗어나기 위한 일반적인 다섯 가지 지침을 살펴보자.

게으름에서 벗어나기 위한 다섯 가지 지침

첫째, 자기일치적 목표를 세워라. 자기일치적 목표란 외부에서 주어진 것이 아니라 자신의 강점과 내적욕구에 바탕을 두고 안에서부터 만들어진 목표를 말한다. 그리고 타인과의 경쟁이나 순위보다는 실력을 향상시키는 목표를 말한다. 훌륭한 운동선수는 ‘순위목표’도 있지만 어제보다 더 좋은 기술과 기록을 달성하기 위한 ‘경기력목표’를 중시하는 사람들이다. 이들은 남보다 앞서기 위해 땀 흘린다기보다 어제의 나를 넘어서기 위해 땀을 흘리는 것이다.

둘째, 작은 성공부터 만들어라. 게으름은 에너지가 저하되어 있는 상태이지만 그렇기에 빨리 뒤쫓아야 한다

는 조바심이 공존하는 상태이다. 그러므로 게으름에 빠진 사람들은 하나같이 자신의 현재 상태를 감안하지 못하고 무리수를 두어 더 큰 좌절에 빠지기 쉽다. 단식에서 회복할 때 미음 같은 소화되기 쉬운 음식부터 먹는 것처럼, 게으름에서 벗어나려면 자신의 실행능력에 맞게 목표를 나누어 작은 실천과 작은 성공을 쌓는 것이 무척 중요하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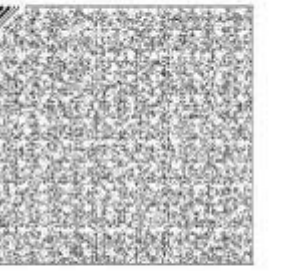
셋째, 마음을 밖으로 드러내고 기록하라. 마음은 안으로 담아둘수록 약해지기 쉽고, 밖으로 드러낼수록 강해진다. 실을 감는 패가 없이 실을 감는다고 해보자. 잘 감길 리가 없다. 마찬가지로, 우리는 새로운 마음을 밖으로 드러내어 계속 되새김질 할 수 있어야 한다. 이를 위해 좋은 점은 자신의 목표나 계획을 실행하는 일지를 쓰는 것이다. 자기비난의 목적이 아니라 자기관찰을 위해 일지를 쓰다보면 어느새 자신의 실행능력이 향상되고 있음을 확인할 수 있다. 그리고 자신의 변화를 다짐하고 격려하는 글귀나 자신이 원하는 미래상과 흡사한 사진을 붙이고 자주 바라보는 것도 마음을 가다듬는 데 많은 도움이 된다.

넷째, 실패를 예상하고 재시도를 고려하라. 계획을 세우면 그대로 지킬 수 있는 사람은 아무도 없다. 중요한 것은 계획대로 하지 못했을 때, 뜻대로 되지 않았을 때 어떻게 반응하느냐의 차이이다. 게으른 사람들은 바로 포기하고 말지만, 게으르지 않는 사람들은 ‘어떻게 하면 잘 할 수 있을까?’를 통해 더 좋은 방법과 개선책을 찾아간다. 그러므로 계획을 세울 때는 계획대로 되지 않았을 때 어떻게 할지 미리 마음의 준비를 하는 것이 필요하다.

다섯째, 다른 사람들의 도움과 자기절제의 도구를 갖춰라. 사람은 자신 혼자 힘만으로 살아갈 수는 없다. 함께 노력하면 보다 오래 할 수 있고 환경의 도움을 받으면 보다 멀리 갈 수 있다. 동호회처럼 자신과 비슷한 목표나 관심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을 만나고 개인의 의지에만 매달리기보다는 할 수밖에 없는 환경을 만들어가는 것이 필요하다. 영어공부를 한다면 집에서 혼자 하는 것보다 학원에 가서 하는 것이 보다 효과적인 것처럼 환경을 어떻게 바꿀지 고민해보자.

이제 만물이 약동하는 봄이다. 게으름에서 벗어나 삶 속으로 뛰어들자.

오감의 고장 하동에 피어나는 봄



2009년 슬로시티로 인증된 하동. 슬로시티란 전통문화를 보호하고 사람이 살만한 따뜻하고 행복한 환경을 지닌 도시를 말한다. 즉, 느리지만 자연과 문화가 함께하는 삶을 원하는 이들이 사는 지역사회다. 하동은 지리산 자락을 따라 펼쳐진 천혜의 절경을 지닌 곳이다. 사실 이곳에서 슬로시티는 전혀 새로운 슬로건이 아니다. 역사 속에서 오랫동안 지내왔던 모습, 그 자체다.

섬진강 물줄기따라 이어지는

아름다운 고장

3월 그리고 4월. 봄의 시작이자 봄의 절정인 이 시기는 남녀노소 누구나 들뜨는 때이다. 겨우내 숨어 있던 도시를 떠나 탁 트인 산과 들, 바다를 만끽하고 싶은 생각을 누구나 한번쯤 한다. 화창한 봄 날 나들이가 유독 많은 이유도 그 때문이다.

그런데 사실 최근에는 겨울이 길어지고 온난화로 인해 봄인가 싶다가도 금세 더워지는 통에 제대로 봄을 만끽하기 어렵다.

특히 서울처럼 거대한 도시 주변에서는. 그래서 많은 이들이 도심을 떠나 먼 곳으로 간다. 그 중에서도 최근 주목받는 곳이 바로 경상남도 하동이다. 화개장터로 유명한 하동은 섬진강 물줄기를 따라 아름답게 펼쳐진 고장이다. 하동군에서 '색깔 있는, 느낌 있는, 맛있는, 향기 있는, 이야기 있는 오감만족의 고장'이라고 소개할 정도로 하동은 다양한 매력을 뽐내는 곳이다.

하동은 현대문학 100년 역사상 가장 훌륭한 소설로 꼽히는 '토지'의 무대가 되었던 곳이기도 하고, 세이암 전설?쌀 바위 전설?금오산 달님 별님 이야기 등 많은 전설과 이야기가 전해진다. 해마다 많은 외지인들은 이런 이야기와 전설을 따라 하동을 다녀간다. 그리고 행복한 기분으로 이곳에 대한 추억을 남긴다.

대하소설 '토지'의 무대였던

하동

박경리 선생의 대하소설 '토지'의 무대이기도 한 하동군 악양면 평사리는 지리산과 섬진강의 혜택을 한 몸에 받은 땅이다. 소설 속 '최참판댁'이 재현되어 있는 이곳은 지리산의 거대한 능선이 남으로 가지를 친 남부능선의 대미에 해당되는 성제봉 아래 넓은 평야 지대가 펼쳐지는 자리에 있다. 미점리 아미산 아래에서 동정호까지 80만평의 넓은 들판, 만석지기 부자를 서넛은 널만한 악양 '무덤이들'이 그곳이다.

20,000여 평의 부지 속에 만들어진 최참판댁과 평사리 마을에는 물레방아, 타작마당, 용이네, 김훈장댁, 읍내장터 등 소설의 배경이자 드라마 촬영지로 쓰였던 시설들이 고스란히 남아 있다. 마을 한 편에는 박경리 선생에 대한 문학이야기와 하동 소재 문학작품들을 엿볼 수 있는 평사리문학관도 마련되어 있다.

'토지민속문화마을'로 불리기도 하는 이 지역에서는 매년 토지문학제가 개최되고 있으며 전국 문인들이 함께하는 문학의 밤 행사 등 다양한 프로그램이 진행된다. 또 특별이벤트로 최참판댁에서 전통 혼례 체험을 할 수도 있다.

하동을 이야기할 때 누구나 '토지'를 빼놓지 않는 것은 이처럼 잘 보존된 체험 현장이 있기 때문이다.



• 오감만족 하동투어 가는 길

버스 이용시

서울

남부터미널에서 오전 7시 30분부터 2시간 간격으로 하동행 버스가 있다.

부산

부산터미널에서 오전 7시부터 2시간 간격으로 버스가 있으며, 하동을 지나 화암사까지 간다.

진주

진주터미널에서 오전 6시 25분부터 20~45분 간격으로 차가 있다. 서울, 부산 이외의 지역에서는 진주터미널을 경유하면 된다.

자가용 이용시

통영/대전고속도로를 타고 함양에서 진주로 향한 뒤, 하동IC로 진입

기타 하동관광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하동군청 문화관광 055-880-2380으로 문의하거나 홈페이지(<http://tour.hadong.go.kr>)를 참조하자.

하동군 악양면 평사리의 대지주였던 최씨 가문 4대의 비극을 다룬 이 작품은 단순한 개인사와 가족사를 넘어 우리의 역사와 풍속 사회사를 모두 담고 있어 큰 공감을 얻었다. 현재 '최참판댁'은 이러한 작품 속 분위기에 어울리게 한옥 14동으로 거듭났고 조선후기의 생활모습을 재현한 토지세트장과 함께 많은 사람들에게 사랑을 받고 있다.

천혜의 아름다움 뽐내는

하동 8경과 녹차밭

하동은 최참판댁 말고도 자랑거리가 넘친다. 우선 천혜의 자연경관이 돋보이는 하동 8경. 꽃샘추위가 끝난 4월부터 화개면 일대는 벚꽃이 십리에 걸쳐 아름답게 피어난다. 이를 십리벚꽃이라 부른다. 십리벚꽃은 사랑하는 청춘남녀가 손을 잡고 걸으면 백년해로한다는 뜻에서 '혼례길'로도 불린다. 매년 4월이면 하동으로 많은 연인들이 데이트를 즐기러 가는 이유다. 십리벚꽃 이외에 하동군 동쪽 연안에는 금오산이 있는데, 이곳에서 바라보는 '금오산 일출과 남해'도 하동 8경 중 하나다. 이밖에 고찰 쌍계사의 단풍, 지리산 천왕봉에서 형제봉까지 이어지는 철쭉, 청학동 삼성궁, 지리산 불일폭포, 하동포구 백사청송 그리고 앞서 말한 최참판댁 등이 8동 팔경이다.

하동호와 동정호 등의 호수도 만만치 않게 경관이 빼어나다. 1980년대 농업용수를 확보하기 위해 만들어졌던 하동호는 지리산 청암계곡에 있는 산중 호수다. 이곳 상류에는 사계절 동화같은 풍경을 만들어내는 계곡들이 있다. 동정호는 원래 중국에 있는 호수의 이름이었는데, 나당연합군이 백제를 침략할 때 당의 소정방이 자국의 동정호와 닮았다하여 같은 이름을 붙였다. 이곳은 천연발생 늪지대로 청둥오리, 봉어, 야생조수가 공존하는

보존가치가 뛰어난 호수다.

날이 따뜻해지면 매력적인 관광자원이 넘치는 하동에서도 특히 눈에 띄는 곳이 있다. 바로 하동 최고의 특산물로 꼽히는 녹차밭. 전체 농가 1만 100여 가구 가운데 1,700여 가구가 녹차를 기른다. 그 면적은 전국의 23%를 차지할 정도. 2006년부터 '녹차산업특구'가 됐을 만큼 하동 녹차는 유명하다.

또 다른 하동의 명물,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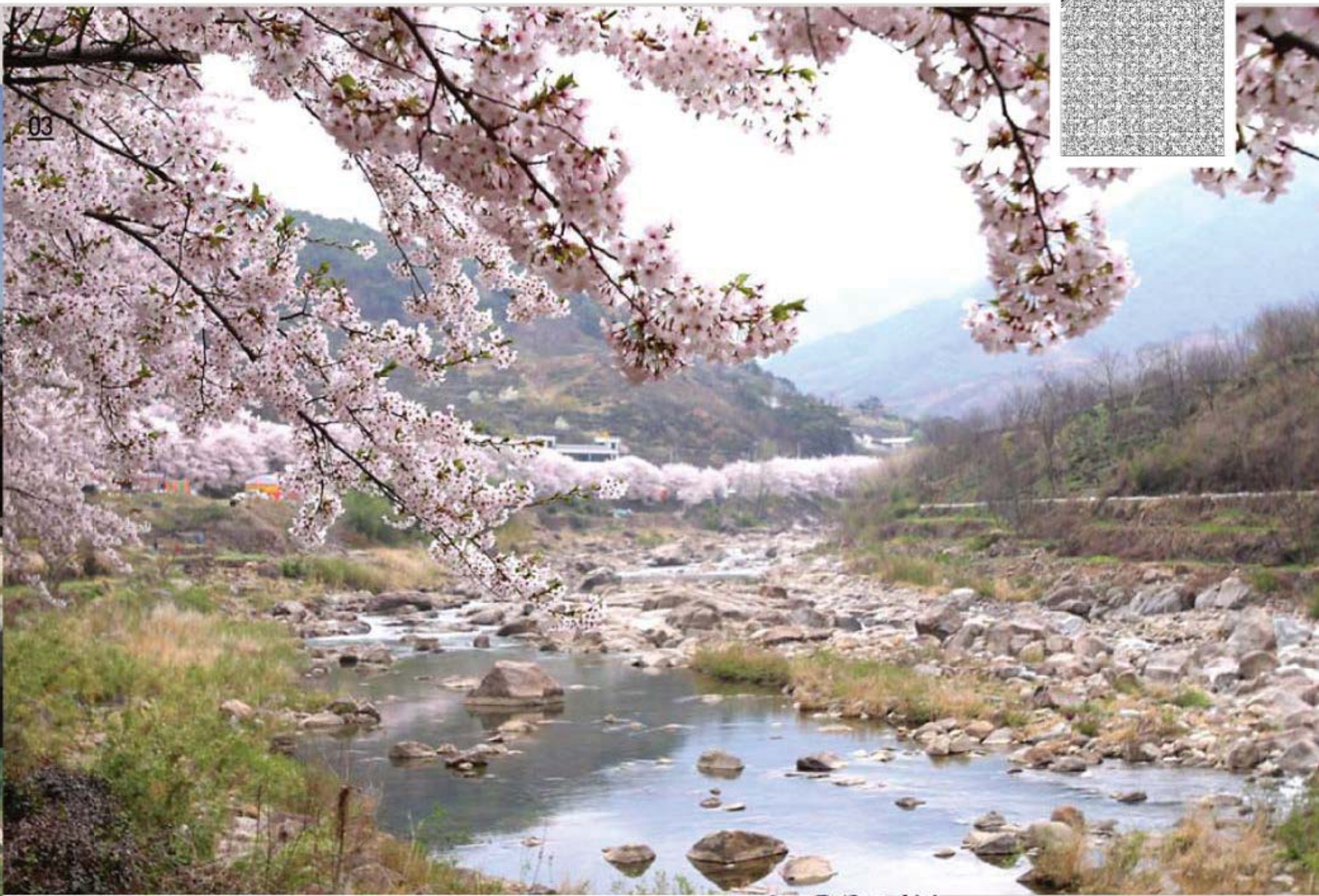
매실과 재첩 그리고 다양한 먹거리

녹차산업특구로 지정될 만큼 녹차가 대세인 하동이지만, 사실 녹차 외에도 하동에는 특별한 음식들이 있다. 바로 매실고추장장아찌, 매실고추장, 매실된장, 매실차, 매실환 등으로 가공되는 '매실'이 또 다른 하동의 특산물. 섬진강 옆에 있는 하동은 겨울에 따뜻하고 강수량이 많아 매실 농사를 짓기에 안성맞춤인 지역이다. 이르면 5월 말부터 수확을 하는데 과육이 단단하고 절임을 했을 때도 식감이 유지된다. 앞서 녹차, 매실을 이야기했지만 사실 하동이 전국 제일인 것은 따로 있다. 그것은 재첩. 예로부터 재첩은 간장병, 황달 등에 좋고 병후 쇠약한 사람을 보호하는 데 좋다고 알려져 있다. 이러한 재첩으로 끓인 재첩국은 최고의 해장국으로 불리는데, 어느 지방과도 비교할 수 없을 만큼 하동이 제맛이다. 100% 하동재첩을 사용해 3대째 대를 잇는 하동전통 재첩국집인 '동흥재첩국'은 일부러 멀리서 오는 이들이 있을 정도.

이처럼 아름다운 볼거리와 재미난 이야기거리, 맛있는 먹거리와 향기로운 꽃, 그리고 정감어린 마을 분위기가 함께하는 하동. 이번 주말 멋진 휴식을 즐기고 싶다면, 가족과 함께 하동으로 달려가 보자.



02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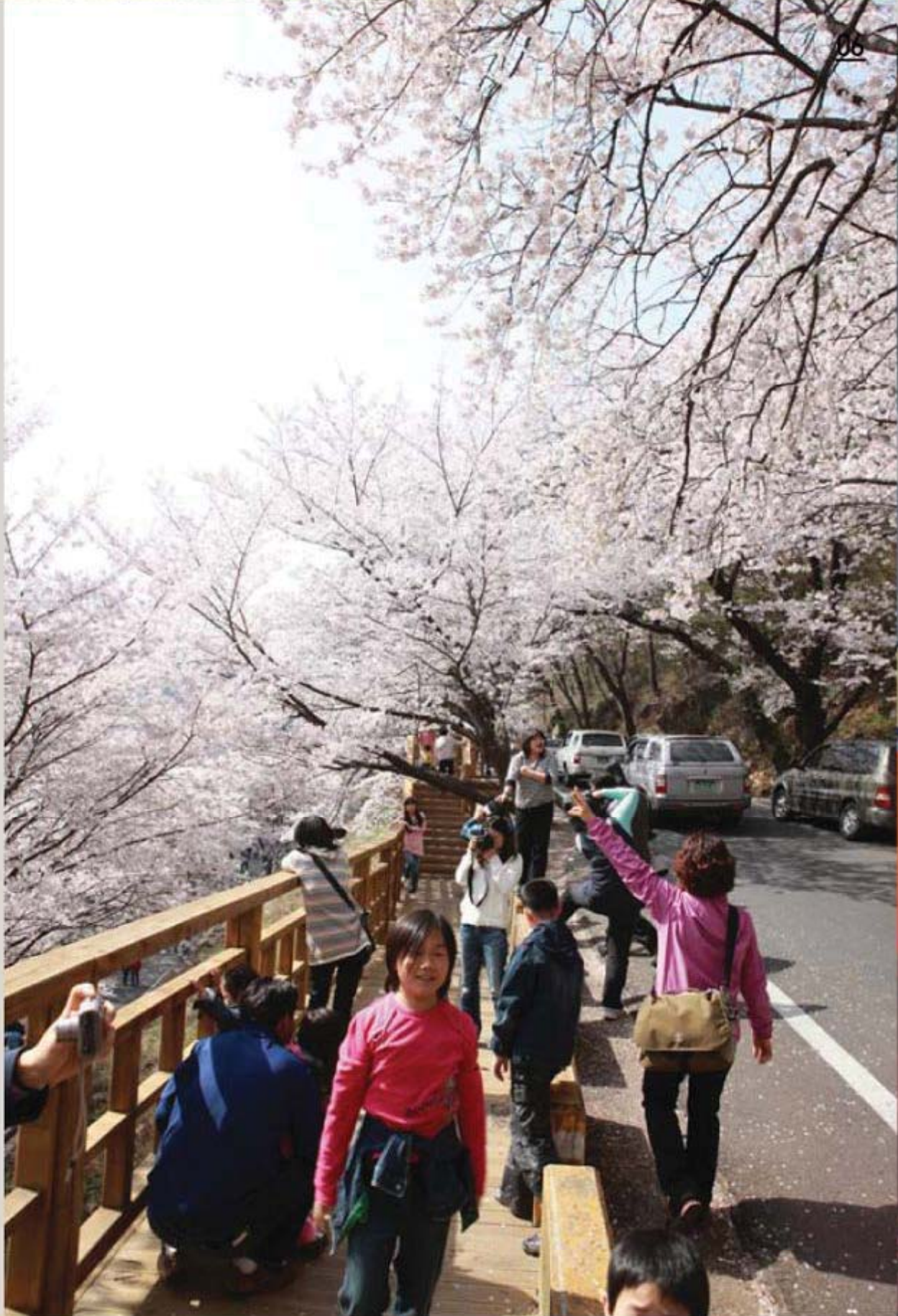
03



04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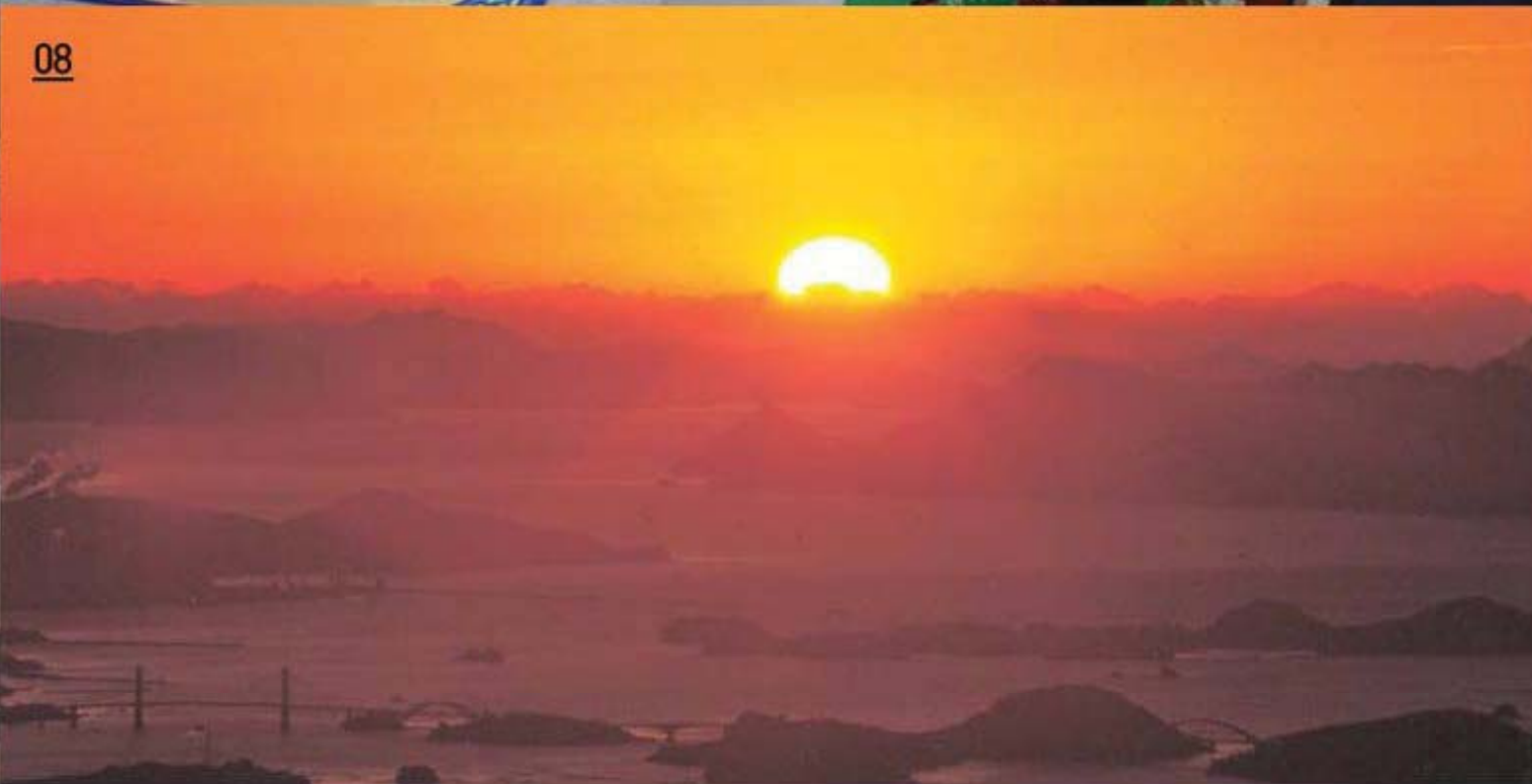
05



06



07



08

- 01 형제봉 철쭉
- 02 토지의 배경인 최참판댁 내부
- 03,06 매년 4월이면 하동의 벚꽃을
보러 많은 이들이 몰려 온다.
- 04 최참판댁 전경
- 05 화개장터가 열리는 삼계면 모습
- 07 하동군 고로쇠협회 주관으로 열
리는 고로쇠 약수제
- 08 금오산 일출과 다도해

부패한 세상에 경종을 울리는 영화

부당거래

‘부패’는 어디서 시작되는가. ‘윗물이 맑아야 아랫물이 맑다’는 말처럼, 위가 깨끗하면 되는 일일까? 흔히 사람들은 책임질 일이 생겼을 때, 핑계거리를 찾는다. 잘못을 지적받았을 때, 내 탓을 하기보다는 ‘남들도 다 그런다’거나 ‘나보다 더한 사람’을 찾는다. 바로 그 때가 실은 ‘부패’ 탄생의 순간이다. <부당거래>는 왜 그들이 부패하게 되었고, 그 이유가 어디에 있는지를 탐구하는 영화다.

털어서 먼지 안 나는 자, 돌을 던져라

지난 해 영화팬들은 멋진 정치범죄 영화를 만났다. <부당거래>. 275만 관객을 동원하며 류승완 감독과 류승범? 황정민 두 배우의 역량을 확인할 수 있었던 이 영화는 그야말로 부패한 세상의 단면을 적나라하게 보여준다. <부당거래> 속 대한민국은 부패하지 않은 곳이 없다. 영화가 영화만의 드라마틱한 전개를 갖기 위해 과장한 측면도 없지 않겠지만, 관객들이 이에 공감할 수 있었던 건 분명 일정부분 ‘사실’이라고 느껴지기 때문일 것이다.

주인공인 최철기와 주양은 물론이고, 힘이 없어 당하는 역할이라고 생각했던 유치원 버스 운전자까지도 관객들을 멍하게 만들만큼 부패해있다.

영화는 악 VS 악 VS 악의 처절한 삼파전을 보여준다. 물고 물리고, 서로를 미워하고 없애야 하지만, 또 필요로 인해 서로를 숨겨줘야 하는 처절한 상황을 적나라하게 드러낸다. 극중 “보험을 든다”는 표현처럼 서로의 약점을 움켜쥔다. 그리고 이러한 ‘악의 고리’는 영화 속에서 모든 곳에 닿아 있다.

이런 영화를 오래도록 기다려 온 이들은 그래서 ‘썸썸하다’고 표현하기도 한다. 너무 사실적(?)이라는 말로 영화에 공감하는 이들도 있다. 감독 스스로도 “찍다보니 다큐가 된 것 같다”는 말을 했을 만큼 <부당거래>는 우리 사회를 반성하게 만드는 무언가가 있다.

<부당거래>에는 결국 털어서 먼지 안 나는 사람이 없다. 지체장애를 지녔던 엄마와 그



“*“우리 잘하고 있는 거 맞죠?”(대호) “지금 잘하고 있는 게 중요해? 잘하고 있다고 믿는 게 중요하지.”(최철기)*
우리는 어쩌면 조직사회에서 버텨내기 위해 집단 최면 주사를 맞으며 살아가는지도 모른다.
 -영화칼럼니스트 김정영 ”

말을 제외하고는 극중 누구도 서로를 욕할 처지가 못 된다. “우린 경찰이잖아요”라며 충직한 모습을 보였던 최철기의 부하 대호조차도 장안동 안마시술소의 뒤를 봐주며 ‘용돈벌이’를 하고 있었다.

욕망의 하수인이 부패한 세상을 부른다

〈부당거래〉는 광화문 한 복판을 비추며 이야기를 시작한다. 최근 벌어진 아동성폭력 사건에 대한 뉴스가 흘러나오지만, 광화문 네거리의 사람들은 각자 길을 가기 바쁘다. 자기 일이 아닌 것에 사람들의 관심은 적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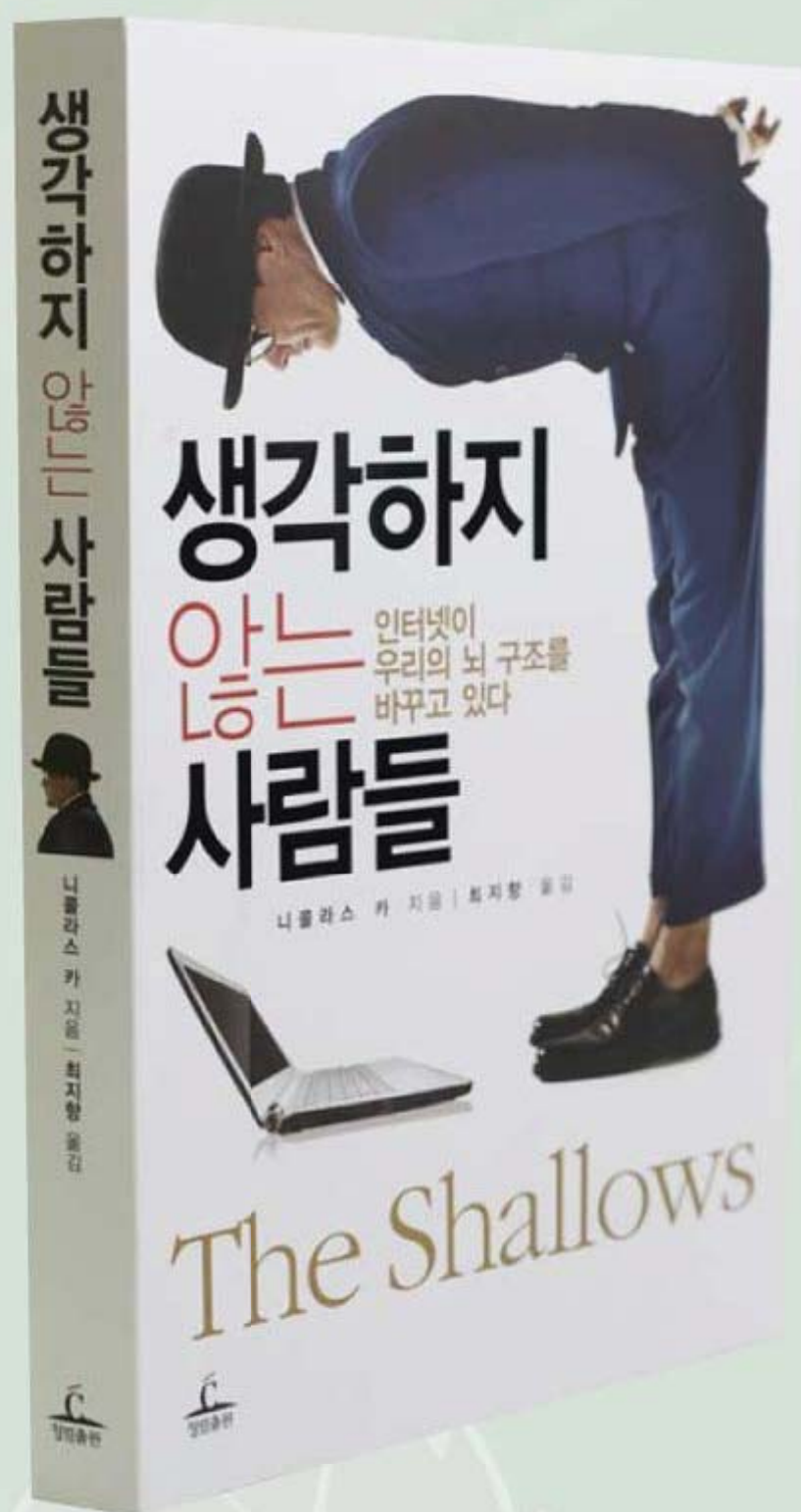
그런데 단순한 성폭력 사건으로 그칠 수 있던 이 일은 청와대의 지시로 특별수사팀이 꾸려지면서, 관련된 다양한 인물들의 욕망이 함께 얹혀 들어간다.

이 일을 계기로 ‘중앙’과 연결될 수 있다는 생각에 최선을 다해 진

범을 만드는 최철기. 그런 그의 약점을 캐내 복수하려는 주양. 최철기 앞에서는 꿈쩍 못하지만 모종의 뒷거래로 최철기의 아킬레스 건을 쥐고 있는 건설업자 장석구. 그 밖에 주인공들과 이런 저런 이권으로 뒤엉킨 사람들. 이 복잡한 실타래는 넉넉지 못한 형편의 여동생과 동료 부하들을 걱정하는 최철기를 점점 더 웅어맨다. 영화에서 최철기는 결국 그러한 현실을 견디지 못하고 점점 부패의 함정에 빠져들어 간다. 뒤늦게 어디부터 잘못됐을까를 생각하지만, 그때는 이미 그가 아꼈던 부하들마저 그에게 총을 겨누는 뒤다.

〈부당거래〉는 통쾌한 엔딩 대신 씁쓸한 현실을 화면에 비춘다. 끝내 자리를 보전한 검사 주양의 모습에서 관객들은 복잡한 심정을 느낀다. 그리고 문득 최철기가 부패하지 않았었다면 어땠을까란 생각을 한다. 그러면 정의의 이름으로 주양의 비리를 잡아낼 수 있지 않았을까? 틀렸다. 만약 최철기가 부패하지 않았더라면, 그의 상관이 경찰대 출신도 아닌 그를 애초에 기용하지도 않았을 터였다. ‘그렇다면 도대체 어떻게 해야 했을까’ 최철기가 죽어가는 순간에 구한 답도 아마 이게 아니었을까.

‘부패’는 ‘윗물이 맑아야’라고 핑계를 댈 수 없는 일이다. 더러운 물이 있으면 퍼내려는 행동과 노력이 없는 한 윗물, 아랫물 논란은 그저 핑계거리인 셈이다. 〈부당거래〉는 그런 노력이 보이지 않는 이 사회의 현실에 경종을 울리는 작품이다.



인터넷이 우리의 뇌 구조를 바꾸고 있다

〈생각하지 않는 사람들〉 / 니콜라스 카 / 청림출판 / 2010

나는 더 이상 두꺼운 문학책을 읽을 엄두를 내지 못한다. 그럴 능력을 잃어버렸다. 어쩔 때는 서너 단락이 넘는 블로그 글조차 집중하기 어렵다. 최근 이런 생각이 든 적이 있다면, 당신은 아직 '생각하는 사람'이다. 당연한 것 아니냐고? 그렇지 않다. 미디어의 발달, 정확히는 인터넷의 발달이 우리 중에 '생각하지 않는 사람들'을 만들어내고 있다. 인터넷이 우리의 뇌 구조를 바꾸고 있기 때문이다.

우리의 뇌는 자라고 있을까? 아마도 30대 이상이라면, '날이 갈수록 나빠지거나 하지 몰...'이라고 생각할지 모른다. 그럼, 뇌가 변화할 수는 있을까? 머리가 굳었다고 생각이 드는 나이에 뇌가 변할 수 있다는 사실을 받아들일 수 있는 사람은 많지 않을 것이다. 만약 그 사실을 받아들인다면, 앞서 말한 날이 갈수록 나빠진다는 변명을 할 수 없기 때문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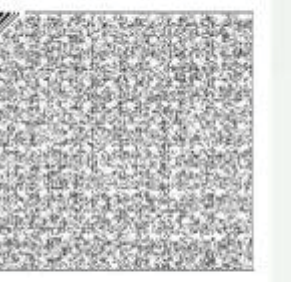
〈생각하지 않는 사람들 - 인터넷이 우리의 뇌 구조를 바꾸고 있다〉는 우리의 뇌가 언제든지, 얼마든지 변할 수 있고 이야기한다. 그리고 뇌가 변하는 데 인터넷이 지대한 영향을 끼친다는 사실을 밝히고 있다. 그로 인한 영향이 결코 유익하지만은 않다는 점과 이를 방치해두면 우리 모두가 '생각하지 않는 사람'이 될 것이라는 경고를

하고 있다.

인터넷으로 생각하고 행동하는 사람들

웹 2.0 시대를 맞이한 후 인터넷은 양극단의 집단이 맞서는 형국이 되었다. 한쪽에서는 적극적으로 인터넷을 옹호한다. 정보의 공유로 인해 보수적인 권위가 무너졌고, 더 많은 사람들이 유용한 정보를 활용할 수 있는 동등한 권리를 부여받았다고 주장한다. 편리하고 다양한 업무 활용은 기본이고, 인간관계의 폭과 생각의 넓이를 넓히는 데도 인터넷이 혁혁한 공로자라고 추켜세운다. 일견 일리 있는 말들이고, 무엇보다 실제 많은 이들이 이와 같은 인터넷의 혜택을 누리고 있다. 이를 부정하기란 쉽지 않다.

이들의 반대편에는 인터넷을 이용하는 사람들을 비판하는 이들이 있다. 많은 이들은 이들이 단지 시대의 흐름에 뒤처지거나, 인터넷 활용도가 떨어지는 사람으로 오해한다. 그러나 인터넷의 문제점을 이야기



하는 <생각하지 않는 사람들>의 저자 니콜라스 카는 디지털 세계의 매력에 흠뻑 젖어있던 사람이다. 그는 컴퓨터와 인터넷에 '미쳐있었다'고 이야기한다. '더 빠른 칩, 모뎀, 기가바이트 용량의 하드 드라이브, 초고속 인터넷, 넷스터와 구글, 페이스북, 트위터, 유튜브와 위키피디아, 블로그, 스마트폰, USB, 넷북'에 저항할 수 없었다. 그런 그가 어느 날부터인가 인터넷이 우리의 뇌 구조를 바꾸고 있으며, 이를 경계해야한다고 이야기하게 됐다. 도대체 왜?

도구의 사용이 인간의 행동을 바꾼다

도구는 사용하는 사람에게 영향을 미친다. 인간의 진화 과정은 도구에 적응하고, 도구에 의해 변화된 과정이었다. 돌도끼를 사용할 때와 예리한 청동검을 사용할 때, 튼튼한 철제 무기를 쥐게 되었을 때 우리 삶의 양상이 어떻게 달라졌는지 생각해보라. 저자 니콜라스 카는 우리 삶에 영향을 미친 도구들 중에서도 정보 공유에 앞장 선 구텐베르크의 인쇄술을 혁명적인 도구로 바라본다. 그는 인쇄술이 발달한 이후에 사람들의 사고와 행동이 크게 달라졌다고 주장한다. 그리고 인터넷은 이러한 혁명적인 변화를 수천, 수만 배 빠르고 강하게 일으키고 있다고 말한다.

그는 단순히 인터넷 환경의 폐해에 대해서만 이야기하지는 않는다. 오히려 그런 변화는 정보가 대중화되면 의례히 일어나는 일이라고 본다.

그가 걱정하는 것은 진짜로 우리 뇌가 도구에 적응해 변화하고 있다는 사실이다. 현대인의 업무 모습을 살펴보면 그의 이런 주장에 고개를 끄덕이게 된다. 컴퓨터로 문서를 수정할 때, 삭제키와 스크롤바, 잘라내기와 붙여넣기 기능, 되돌리기 명령이 없다면 사람들은 일을 제대

로 할 수 있겠는가? 하지만 처음 컴퓨터가 등장했을 때만 해도 사람들은 문서를 출력해서 연필로 밑줄을 긋고 수정한 다음 그걸 다시 보고 수정하며 일했다. 지금 그렇게 수정을 한다면 A4 300페이지 이상 씩 하는 보고서는 어떻게 처리해야 할까?

21세기, 다시 '생각하는 사람'으로 돌아가는 방법

문제는 위와 같은 상황이 단순히 업무처리 과정 뿐만 아니라, 인터넷에서 일어나는 모든 사고 과정에서 발생한다는 것이다. 필요한 정보를 훑고 스크랩해두고, 태그에 검색어를 지정하고 궁금한 것은 짧고 간결하게 묻고, 대답한다. '필요'에 의해서 '가장 효율적인 방법'으로만 사고가 흘러가게 되는 것이다. 분명 이는 할 수 있는 일의 양을 대폭 늘렸다는 점에서, 대단한(?) 일이지는 하다. 하지만 곰곰이 생각해보면 바로 이러한 변화가 지금 우리의 발목을 붙잡고 있는 것 아닐까? <생각하지 않는 사람들>의 저자 니콜라스 카는 이렇게 인터넷에 고착화되는 현대인의 모습을 걱정하는 것이다. '필요한 것만 가장 효율적으로' 하는 모습은 인간이라기보다 '기계'에 가까운 모습이기 때문이다. "워드프로세서 사용에 있어 나 스스로가 워드프로세서의 일부가 되어버린 것이다"는 저자의 고백은 그래서 섬뜩하다.

기술의 발달과 이용은 인간에게 필요한 것임은 분명하다. 그러나 저자의 말대로 우리가 기계처럼 변해가는 것이라면 그것 역시 분명한 문제 아닐까?

저자는 책 말미에 자신이 잠시 인터넷 세계를 떠났을 때 몹시 평화로웠다고 한다. 이메일을 수시로 확인하지 않아도 되자 그동안 사용하지 않던 신경 회로 일부가 살아나는 듯한 느낌을 받았다고 말한다.

그러나 결국 저자는 다시 인터넷 앞에 앉아 자료를 정리하며 책을 썼다. 그렇게 될 수밖에 없는 자기 자신을 안타까워하면서, 작가인 그도 인터넷을 떠나지 못했는데, 업무와 생활에서 인터넷이 핵심인 사람들이 인터넷을 떠나 생각하고 살기란 쉽지 않을 것이다. 그렇다면 어떻게 해야 할까? 바로 이 질문을 던지고 고민하는 것부터가 '생각하는 사람'으로 돌아가는 길이다.

백운현 부위원장, 오준근 부위원장 취임

지난 3월 16일 권익위 부패방지 분야와 행정심판 분야에 백운현 부위원장과 오준근 부위원장이 내정됐다. 행정안전부 소청심사위원회 상임위원과 경희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를 지낸 두 사람은 17일 오후 권익위 사옥에서 직원들과 인사를 나누고 본격적인 부위원장 업무를 시작했다.

백운현 부위원장은 1956년 경북 성주 출신으로 1978년 행정고시 21회로 공직에 발을 들여 놓은 뒤 행안부 차관보, 청와대 행정자치비서관 등을 역임했다.

행정심판 분야를 맡게 된 오준근 부위원장은 1957년 충남 출생으로 육군사관학교 교관과 한국법제연구원 연구위원을 거쳐 경희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로 활동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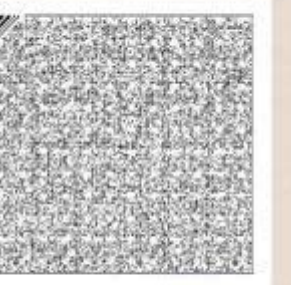
중앙행정심판위 '지역순회 구술청취' 실시

국민권익위원회는 지방에 거주하면서 서울에 있는 중앙행정심판위원회에 행정심판을 낸 청구인의 진술 편의를 위해 행정심판 위원들이 청구인이 있는 지역을 직접 방문해 진술을 듣는 '순회 구술청취제도'를 실시한다. 중앙행정심판위원회는 지방거주자와 노약자, 장애인 등 직접 위원회에 나오기 어려운 청구인의 편의를 위해 이번 제도를 마련했다.

올해 처음 실시되는 순회구술청취 일정은 16개 시·도를 10개 권역으로 나누어 진행되며, 지난 2월 처음으로 경기도와 인천광역시에 거주하는 행정심판 청구인 10여명을 대상으로 현지에서 구술청취가 있었다. 중앙행정심판위원회는 새로 도입한 순회구술청취에 대한 청구인의 의견을 반영하고, 올해 운영과정에서 나타나는 미비한 점을 보완해 향후 제도를 더 확대하기로 했다.

년월	대상지역
2011. 2 (가 실시)	경기도, 인천광역시
2011. 3.	부산광역시
2011. 4.	충청남도, 대전광역시
2011. 5	강원도
2011. 6.	충청북도
2011. 7.	전라북도
2011. 9.	전라남도, 광주광역시
2011. 10.	경상북도, 대구광역시
2011. 11.	경상남도, 울산광역시
2011. 12.	제주도

*2011년도 순회구술청취 일정



권익위 고위공직자 청렴교육 나선다

국민권익위원회는 국가청렴도 향상을 위해 공무원 및 공직유관단체 고위공직자를 대상으로 '찾아가는 청렴교육'을 실시한다. 우리나라는 선진국에 비해 다양한 반부패 청렴정책을 추진함에도 불구하고, 2010년 10월 국제투명성기구(TI)가 발표한 국가 청렴도 점수가 계속 정체되는 등 청렴정책의 대외신인도 측면에서 가시적 성과를 거두지 못하고 있다. 이에 국민권익위는 대외 이미지를 좌우하는 고위공직자에 대한 「청렴교육 의무화」 방안을 국무회의에 보고하고, 관련지침을 마련하여 개별 공공기관에 시달하였다. '찾아가는 청렴교육'은 그러한 노력의 일환이다. 강사는 김영란 국민권익위원장과 김대식 부위원장, 백운현 부위원장이 맡게 되며, 고위공직자가 알아야 할 부패사례 유형 및 국가청렴도와 국가경쟁력, 고위공직자의 윤리의식, 알선 청탁 금지 등에 관한 교육이 이뤄질 예정이다.



진천선수촌 진입로 높이

집단민원 현장조정

대한체육회와 충북 진천 광혜원면 죽동마을 주민들 간에 빚어졌던 갈등이 국민권익위원회의 중재로 해결됐다. 대한체육회는 충북 진천에 선수촌을 건립하면서 진입로 높이를 인근 죽동마을 진입로보다 1.8m 높게 설계해 주민들과 마찰이 생겼다. 산사태 위험과 조망권 문제로 죽동마을 주민들이 민원을 제기한 것이다. 지난 1월, 국민권익위에도 민원이 접수됐다. 국민권익위는 이후 3회의 현장조사를 실시



했으며, 수차례 실무 조정 협의를 해왔다. 그리고 드디어 지난 3월 24일 김대식 부위원장이 주재한 회의를 통해 선수촌 진입로의 높이를 당초 1.8m에서 1m로 낮추어 시공하는 합의를 이끌어 냈다. 김대식 국민권익위 부위원장은 "이번 조정은 권익위와 마을주민, 관련기관이 협력하고 양보한 결과로, 이번 조정을 계기로 국책사업인 진천선수촌 건립사업이 성공적으로 추진되기를 바란다"고 밝혔다.

이번호 <국민권익>도 재미있게 읽으셨나요. <국민권익>은 독자분들의 참여로 만들어집니다. <국민권익>을 읽고 난 소감과 바라는 점 등을 엽서를 통해 보내주세요. 독자 여러분의 관심과 애정 어린 비판을 환영합니다. 엽서를 통해 다양한 의견과 퀴즈 정답을 보내주시는 분들 중 네 분을 추첨하여 문화상품권을 드립니다. (응모마감 4월 22일)

독자의 작은 소리도 크게 듣겠습니다!

두 자녀의 엄마입니다. 아이들을 위해 보여주고 느끼게 해주어야 할 것이 많은데, <국민권익>을 보면서 더욱 그런 생각이 드네요. 다른 매체들에서는 폭력적이고 부정적인 것이 많이 보이는데 <국민권익>에서는 따뜻하고 좋은 글들이 많이 보이는 것 같습니다. '청렴'이 무엇인지 묻는 아이를 보고 기쁜 마음이 든 것은 저뿐만이 아닐 것입니다. 앞으로도 늘 지금처럼 국민의 힘이 되는 이야기를 전해주세요.

장익주(대구광역시 달서구)

<일상적 차별에 신음하는 장애인들> 이야기를 읽고 깊이 공감했습니다. 저는 우리 모두가 예비 장애인이라고 생각합니다. 일상에서 일어나는 장애인 차별은 그래서 더 마음 아픕니다. 우리 스스로를 위해 반드시 개선해야할 문제인 것입니다. 평소 존경했던 김영란 위원장과 김대식 부위원장의 취임을 보면서 이런 문제가 정말 개선되고 해결되겠구나 하는 희망을 가져봅니다. 모쪼록 국민의 권익을 위해 힘써주세요. **김순만(경기도 의정부시)**

다양한 직종에 종사하는 분들과 함께한 릴레이 인터뷰 기사가 좋았습니다. 우리 사회 다양한 분야에서는 어떤 생각을 가지고 있는지 함께 공유하게 되어 반가웠습니다. 앞으로 국민권익위원회가 부당하게 권익을 침해당하는 일이 없도록 특히 힘써주었으면 좋겠습니다. **김휘곤(울산광역시 북구)**

항상 가까이 두고 오랫동안 친구 삼고 싶은 <국민권익>입니다. 억울한 일, 힘든 일이 있을 때 든든한 우군이 되는 국민권익위원회의 다양한 모습을 볼 수 있기 때문이지요. 이 사회가 밝은 빛을 내고 깨끗한 공기로 가득차길 바라는 마음이 간절합니다. 2011년, 더 활동적이고 적극적인 모습의 국민권익위원회를 기대하며 화이팅을 외칩니다!

류정순(서울특별시 영등포구)

지난호 정답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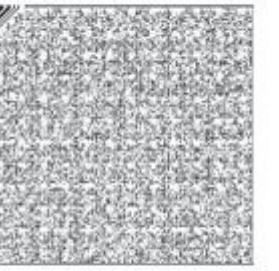


틀린그림찾기

사진에서 달라진 부분 3곳을 찾아 독자엽서에 체크해 주세요. 정답은 다음호에 게재됩니다.

틀린그림찾기에 응모하신 분들은 국민권익위원회의 정책고객으로 자동 등록됩니다.





살다보면 때론 궁금할 때가 있습니다.

불편할 때가 있습니다.

그리고... 어려울 때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곁엔 110이 있습니다.

110에 물어 보세요.

대한민국은 110으로 통합니다.



국민권익위원회
Anti-Corruption & Civil Rights Commission



아름다운 꽃들이 만개하는 계절. 우리 마음도 들뜬다.
국민 모두가 같이 즐거워지는 나라,
전국 방방곡곡에 환한 웃음이 들리는 나라를 위해
국민권익위원회가 함께 합니다. 여러분의 마음을 그리겠습니다.

03+04 2011 vol. 19

illust by . 김 준겸



국민권익위원회
Anti-Corruption & Civil Rights Commission

www.acrc.go.kr